

냉전텍스트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의 한국 번역과 수용의 냉전 정치성*

李奉範**

- | | |
|------------------------------------|---------------------------|
| I. 『실패한 신』의 기획과 한국에서의 번역 양상 | 냉전 정치성 |
| II. 냉전텍스트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및 동아시아의 문화냉전 | IV. 냉전텍스트 전유의 균열과 탈냉전적 전망 |
| III. 냉전텍스트의 심리전 활용과 전향의 | V. 남은 문제-결론을 대신하여 |

• 국문초록

이 글은 1949년 문화냉전이란 분명한 의도에 의해 기획·탄생한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이 한국에서 번역되는 맥락과 그 수용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실패한 신』이 지닌 냉전텍스트로서의 위상과 그 영향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패한 신』은 공산당에 입당했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한 바 있는 스티븐 스펜더, 아서 괴슬러, 이냐치오 실로네, 리처드 라이트, 루이스 피셔, 앙드레 지드 등 저명한 서구 지식인들의 공산주의 가담, 체험, 환멸, 탈퇴의 과정을 상세히 고백한 공산주의체험 에세이집이자 공산주의 (재)전향의 기록이다. 이 전향텍스트의 특징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소비에트체제)/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동시적인 비판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실패한 신』은 CIA의 문화냉전 전략에 의해 공산주의(체제) 실패를 입증해주는 결정적 증거로 의미화 되면서 문화냉전의 대표적인 심리전 텍스트로 활용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0667)

** 성균관대 강사

었다. 또한 문화자유회의를 비롯한 국제적 냉전문화기구를 매개로 세계적인 확산과 냉전텍스트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실패한 신』은 문화냉전의 세계적 연쇄와 냉전지식의 동아시아적 및 한국적 변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실패한 신』의 한국 번역 및 수용의 양상을 연대기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네 가지 지점을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첫째, 문화냉전의 세계적 연쇄와 냉전지식의 한국적 변용에 대해 탐색이다. 국제적 냉전문화네트워크와의 연계 하에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번역메커니즘과 복수의 번역주체가 변용·전유한 냉전정치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냉전문화사의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둘째, 『실패한 신』의 번역 실재에 대한 총체적 정리이다. 셋째, 전향 의제의 냉전정치성과 사상사적·문화사적 영향이다. 넷째,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기원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이다. 큰 시차 없이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번역되는 특징에 주목하여 그 수용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사적으로 분석하여 냉전아시아 문화냉전의 기원을 탐색하고자 했다.

『실패한 신』의 한국 수용은 냉전분단체제의 거시적인 규율 속에 반공산주의의 정당성을 확증해주는 텍스트로, 체제옹호를 뒷받침해주는 대내외 심리전텍스트로 두루 활용되는 기초가 유지되었다. 좌익에 남아 있던 공산주의전력자의 증언으로만 구성된 『실패한 신』의 텍스트성과 그로 인해 출간 당시 『실패한 신』 및 저자들이 좌우 진영 모두로부터 의혹과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이 냉전텍스트가 한국에서는 반공산주의텍스트로 비교적 단일한 의미 변용을 거쳐 수용되었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관철된 특징이 있다. 포도레즈가 특히 경계했던 제3세계에서 이 텍스트의 반공주의 지식으로서의 불충분성과 반소주의의 정치적 미흡함이 한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패한 신』의 기획 의도가 한국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이 가능했던 원천은 냉전분단체제하 사상 전향이 내포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구속성 때문이었다. 이 같은 수용은 지배 권력의 통치술로 확대 강화된 면이 컸으나 한국사회에 광범하게 정착된 냉전멘탈리티가 이에 못지않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산주의의 실제 체험은 『실패한 신』의 냉전텍스트성과 심리전 효과를 증폭시키는 주된 바탕이었다. 이는 동아시아국가들의 번역 수용과도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실패한 신』은 문화냉전텍스트로 규정되어 전파되었으나 그 내용과 영향을 고려하면 러시아혁명 이후 20세기 세계사를 포괄한 지성사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전력자들의 사상적 고뇌와 지적 유토피아니즘에 대한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실패한 신』의 재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 『실패한 신』, 냉전, 문화냉전, 번역, 수용, 문화자유회의, 미국 중앙정보국, 냉전정치성, 변용, 전향, 동아시아, 고백, 장기지속성, 재맥락화, 소비에트, 심리전, 선전, 냉전지식, 소프트파워

I. 『실패한 신』의 기획과 한국에서의 번역 양상

1949년 R.크로스먼이 펴낸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은 한때 공산주의자였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했던 저명한 서구지식인들의 공산주의체험 에세이집이다. 공산당에 입당해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던 전력을 지닌 스티븐 스펜더, 아서 퀴슬러, 이냐치오 실로네, 리처드 라이트 등과 사회주의자 미국언론인 루이스 피셔, 공산주의자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는 『소련기행』의 저자 앙드레 지드 등이 공산주의 가담, 체험, 환멸, 탈퇴의 과정을 상세히 고백한 전향 수기였기 때문에 출간 당시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저자들의 국적과 공산주의에 입문하게 된 동기, 시점, 신념체계, 접근법, 실제 활동이 각기 다르고 탈퇴의 시점과 이유 및 전향 후의 행적 또한 많은 차이가 있지만, 1920~30년대 자유주의(체제)/사회주의(체제)를 넘나든 (재)전향자였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이 (재)전향의 기록들은 공산주의 체제, 특히 소비에트사회 또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배신감과 환멸로 점철되어 있으나 그 이면에는 러시아 혁명, 스페인 내전, 자본주의체제의 위기, 파시즘의 팽창 등이 계기적으로 연속되면서 고조된 1920~30년대 서구 자본주의체제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실망, 혐오, 비판 등이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사회주의 양대 이데올로기(체제)의 결합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지식인들의 생생하고 신랄한 실천적 조서(調書)라는 의미 또한 지닌다. 그렇지만 『실패한 신』은 서구 냉전반공주의자들에 의해 반스탈린주의 또는 반공산주의 선언으로 편향되어 의미화 되었고, 전후 냉전체제하 미국이 주도한 문화냉전의 대표적인 심리전 텍스트로 활용되는 가운데 공산주의의 실패를 증언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널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파·수용되었다. 열전의 경험과 이후 강고한 분단체제의 규율에 갇혔던 냉전기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했다.

여기에는 손더스가 다층적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CIA의 문화냉전 전략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실패한 신』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체제 재편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한 이데올로기의 개발을 통해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해야 했던 서구 자유주의진영이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한 전략적 구상의 산물이었다. 영국정보국과 미국CIA의 공동전선으로 추진된 이 전략이 실현되는 맥락은 매우 복잡하다. 손더스에 따르면, 전후에 공산주의의 허위를 해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한 영국정부의 당면 과제를 당시 정보국 자문역할을 수행하던 퀴슬러가 마찬가지로의 과제와

구상, 즉 과거 공산주의자였던 좌파 인물을 끌어들이어 공산주의 신화를 파괴하려는 아이디어에 골몰하고 있던 CIA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실패한 신』의 출간 기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한다. 비공산주의 좌파를 파트너로 인정해 이용하는 CIA의 문화냉전 전략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근거가 『실패한 신』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¹⁾

CIA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금 지원과 함께 『실패한 신』 기획을 계기로 해서 ‘실패한 신의 무리’로 명명한 비공산주의 좌파 지식인들을 결속시키는 작업을 추진하는데, 괴슬러와 영국심리전조직의 독일지역 책임자 R. 크로스먼이 주축이 되어 미국 심리전의 베테랑 C. D. 잭슨, 당시 독일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의 문화계 선전원 맬빈 래스키 등과의 접촉으로 확대되면서 『실패한 신』의 필자가 섭외되는 동시에 수록된 원고들이 『인카운터』의 독일어판 자매지 『데어 모나트』에 번역 소개하는 한편 크로스먼의 편집을 거쳐 영영판과 미국판 발행으로 이어진 가운데 『실패한 신』은 미국 정부기관에 의해 유럽 전역에 배포·홍보되기에 이른다. 냉전 정보전의 결과로 탄생한 『실패한 신』이 이후 공산주의전향자들의 집단적 참회이자 스탈린주의에 대한 거부와 반항의 성명서로 변용되면서 냉전시대 문화의 세계에 공식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여권’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²⁾ 그 과정의 중심에 『실패한 신』 기획이 확대 발전하여 창설된 ‘문화자유회의(Cultural Freedom Council)’가 존재하고 있으며, CIA의 비밀공작을 대행했던 전위적 냉전문화기구 가운데 하나인 문화자유회의가 거점이 되어 『실패한 신』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문화냉전 텍스트로 활용되기에 이른다. 유로코뮤니즘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 개념을 오히려 CIA가 활용해 소련(사회주의)의 숨통을 누르는 냉전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개막된 것이다.

『실패한 신』의 기획 의도와 이 텍스트가 갖는 문화냉전의 성격은 책을 기획·출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R.크로스먼이 작성한 ‘서문’에도 소상하게 밝혀져 있

1)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유광태·임채원 옮김,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2016, 105~115면. 손더스는 CIA의 이 같은 전략에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1949년 출판된 세 책, 즉 아서 슐레진저의 『결정적 핵심』, 『실패한 신』, 조지 오웰의 『1984』을 꼽는 가운데 비공산주의 좌파를 이용하는 전략이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CIA 정치공작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2) 위의 책, 118면.

다.³⁾ 그는 이 책의 착상과 출판이 궤슬러와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으며, 당시 반공인사를 자처하는 사람들보다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의 내막을 철저히 알고 있다는 궤슬러의 발언과 그가 공산당에 가담할 당시의 심적 상태를 듣고 공산주의로의 전향이 가장 극심했던 1920~30년대, 즉 러시아혁명과 독소불가침조약 체결 사이 유럽의 시대 풍조와 전향의 심리를 알고 싶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를 아무 감정 없이 회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작가와 저널리스트로 대상자를 한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R.크로스먼은 이들 6명의 전향에세이가 지닌 공통적인 특징으로 맹목적인 공산주의자나 반공선전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다시 말해 공산주의로의 전향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종교인에 가까운 경건함과 내적 비밀을 고백함으로써 진실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전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견한 서구민주주의의 결함 및 허위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로부터 마르크스시즘에 가까워졌고 일부는 공산주의와 소비에트가 대안적 선택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전향의 기회 및 동기도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독일공산당의 타락, 코민테른의 권위주의, 소비에트의 거둬들인 숙청과 독재화, 스페인내란, 독소불가침조약 등 1920~30년대 중요한 국제적 정치현상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특히 1939년 8월 독소불가침조약 체결이 당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파시즘을 지지하는 결과로 비춰지는 국면에서 이들의 심적 갈등을 해소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루이스 피셔 또한 “독소불가침조약은 볼셰비키 국제주의의 묘석(墓石)이요, 볼셰비키 제국주의의 초석(礎石)”⁴⁾이었다고 비판하며 독소불가침조약 체결이 당시 자신을 포함해 공산주의로의 전향자 및 소비에트 지지의 지식인들이 반공산주의자로 전향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전후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실패한 신』이 갖는 위상이다. 저자들이

3) 리차아드 크로스먼 편,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 을유문화사, 1952.9, 1~17면. 크로스먼의 서문에는 앙드레 지드가 급격한 건강 악화로 집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에니드 스타키에게 요청해 지드가 소련여행 후 1936년에 출간한 두 권의 기행기와 일기 및 1939년 ‘진리동맹’에서의 토론 내용 등에 기초를 두고 그녀가 작성한 것이며, 지드에게 최종적인 허락을 받아 수록했음을 ‘부기’의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 지드의 전향기가 이 책에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간주된 가운데 그의 소련 비판을 신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4) 위의 책, 325면.

전향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 있으나 그것이 서구민주주의를 자동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었다. 스티븐 스펀더의 발언처럼,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곧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두 체제 모두 억압, 부정, 자유의 말살과 수많은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문제시하고 있었다.⁵⁾ 전후 세계질서 속에서 파시즘과 공산주의국가의 팽창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미국에 대한 지지를 취했으나 그것 또한 차악(次惡)의 선택일 뿐이었다. 이중부정의 태도, 즉 이들은 서구민주주의와 공산주의(체제)의 경계지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전향의 동기가 소비에트체제의 체험에 근거한 환멸, 절망 때문이었다는 점에서『실패한 신』이 소비에트의 실패를 입증해주는 것이자 동시에 적색 제국주의에 대항해야 하는 필요성을 드러내준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공산주의 좌파로 명명된 이들 집단의 존재 자체는 비록 분산적이었으나 광범하게 분포한-서구민주주의의 위기 및 오류를 극복해야 하는 시급성을 응변해주는 또 다른 증거로서의 가치를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R.크로스먼은 『실패한 신』의 기획이 반공주의 정치선전을 확산하는데 또 전향에 대한 개인적 변호의 기회로 삼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공산주의와 정치적 적수로 싸워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서구민주주의의 진가를 진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의 양심고백(자기비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그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은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절반의 성공이 가능했던 요인도 정치인을 배제하고, 전향했으나 여전히 공산주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은 복잡 미묘한 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작가들로 필진을 구성하고자 했던 애초의 구상이 적중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실패한 신』의 전향자들은 전후에 서구가 직면한 이중의 과제, 즉 반공산주의 투쟁과 서구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루이스 피셔만이 공산주의독재의 악과 민주주의 악에 대한 이중의 거부(자)는 인간을

5) 위의 책, 399~401면. 스펀더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1928~1939년에 중점을 둔 자서전 『세계 속의 세계(World within World)』(1951)에서 동서 양 진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받는 상황에서 양쪽의 경쟁적인 주장을 판단할 뿐 미국과 소련 모두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며 동서의 갈등은 외면적 힘 사이의 투쟁일 뿐 도덕상의 선택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S.스펜더, 위미숙 역, 『世界 속의 世界』, 중앙일보사, 1985, 221면.

염두에 두고 자유를 위한 십자군을 조직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 공산주의자나 동조자에 대한 관용을 단서로 다는데, 이는 그들도 언젠가는 환상에서 깨어날 것이며 모든 공산주의자는 잠재적인 반공산주의자로서 설득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셔의 제안은“향후 최종적인 투쟁이 전 공산주의자와 현 공산당원과의 싸움이 될 것”⁶⁾이라는 실로네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실로네의 이 발언은 당시의 국제공산당에 대한 거부이자 사회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자신의 신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었다. 이 같은 투쟁의 방향은 1947년 미국의 마셜플랜과 소련의 세계 공산화 계획의 추진에 따른 적대적 냉전질서의 정착, 특히 1949년 소련 핵무기개발 및 신중국이 성립되면서 미소 경쟁이 격화되는 신국면이 조성되면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국제무대에서 미국화/소비에트화를 위한 문화전쟁, 즉 문화냉전의 차원에서 『실패한 신』은 서구에서 출간된 일련의 반소비에트적인 선전 책자를 대표하는 텍스트로서의 위상을 획득하는 가운데 반공산주의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냉전정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신』의 문화냉전 텍스트로서의 가치는 책의 내용 못지않게 이 텍스트가 어떻게 전파되었고 또 수용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실패한 신』의 기획이 CIA의 구상에서 탄생했고 또 CIA문화냉전의 전략적 방편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때, ‘팍스 아메리카나’를 위한 문화전쟁이라는 CIA공작의 기본 목표가 애초의 의도대로 관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⁷⁾

6) 위의 책, 161면.

7) 1966년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CIA보고서(「CIA : 『뉴욕·타임즈』가 파헤친 비화」, 『동아일보』, 1966.4.30~6.4, ⑧회 초역 연재)에 따르면, “세계의 중추신경” 또는 “보이지 않는 정부”로 불리는 CIA의 비밀공작은 제3국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권의 수립을 도우며 현지의 군대를 조종하고 쿠바침공을 지휘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첩보·방첩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외 민간재단, 서적 및 잡지출판사, 국제문제연구학회, 외국방송국 등에 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하면서 정보수집 및 자체 공작뿐만 아니라 적의 공작에 대항하는데, 이들 단체들이 CIA를 위해 정말 유익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뮌헨에 있는 CIA가 문화자유회의, 자유유럽방송 등을 통해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작을 전개했으나 이 또한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CIA조직의 특성상 공작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폭로와 함께 CIA의 아버지로 불리던 전 CIA국장(1953~61) 알렌 W. 딜레스의 *The Secret Surrender*(최을림 역, 『스파이전 비록』, 보음출판사, 1966)가 출간됨으로써 CIA는 막다른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후 조직의 위상에 대한 제도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국내외 사업에 여러 제약을 받게 된다.

『실패한 신』이 냉전기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것은 다섯 번이다. 1952년 을유문화사版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 사상계사 번역의 『환상을 깨다』(1961.7, 사상문고 ②), 공보부조사국 산하 내외문제연구소 번역의 『붉은 신화』(1964.11, 내외문고⑨), 국제펜클럽한국본부의 기획 번역 『실패한 신』(한진출판사, 1978), 범양사版 『실패한 신』(1983) 등이다. 1984년 문명사에서 출간한 『실패한 신』은 사상계사번역본 『환상을 깨다』를 제목만 고쳐 그대로 재판한 것이라 별다른 의미가 없다. 『실패한 신』에 수록된 글 중에 아서 괴슬러, 앙드레 지드, 루이스 피셔의 에세이가 국민사상연구원이 발행한 잡지 『사상』지에 연재되었고(1952.8~12), 중앙정보부 관할의 북한연구소 발행 『북한』에 ‘世界著名作家轉向記’ 기획으로 6회 초역 연재된(1974.11~75.7) 것까지 포함하면 한국에서 『실패한 신』의 번역이 의외로 많았고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과 전역(全譯), 부분 번역(사상계번역본은 괴슬러, 실로네, 지드, 스펀더 등 4편 만 수록), 초역(抄譯) 등의 번역 형태 그리고 목차 배열의 차이가 존재하나, 번역된 내용은 대체로 원서(New York:Harper&Brothers Publishers, 1949 또는 London:Hamish Hamilton, 1950)와 큰 차이가 없다.

주목할 것은 번역 출판의 시점 및 주체 그리고 구성 체계이다. 번역 출판이 공교롭게도 한국전쟁 기간을 비롯해 4·19혁명과 5.16쿠데타, 전국적인 한일국교정상화반대투쟁 고조기, 긴급조치 시기, 제5공화국 등 한국현대사의 격동적 전환 지점마다 이루어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사상연구원, 을유문화사, 사상계사, 내외문제연구소, 한국펜클럽 등 당대 냉전반공 지식을 생산·전파하는데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유수의 출판기관 및 단체들에 의해 기획된 특징이 있다. 단순한 번역출판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번역주체의 특정한 욕망과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 목차 배열과 역서(譯序), 추가된 부록 등을 살펴보면 사상전의 텍스트로 활용되었다는 공통점과 함께 번역 당시의 정치적 현실 및 이데올로기적 지형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가령, 범양사版의 경우 네오콘(neocons,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의 핵심 이데올로그 노만 포도레츠(N.Podhoretz)의 『실패한 신』을 재맥락화 한 비평문과 김은국의 발문을 추가 편집함으로써 공산권 문호개방에 따른 좌파이데올로기의 대두에 대한 경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실패한 신』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문화냉전기구들, 예컨대 문화자유회의와 문충 북한지부 및 사상계사, 국제펜클럽 등과의 긴밀한 접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실패한 신』의 지속적인

번역출판이 문화냉전의 세계적 연쇄와 이를 매개로 한 냉전지식의 한국적 내재화를 잘 드러내주는 텍스트였음을 시사해준다.

『실패한 신』은 R.크로스먼이 누차 강조했듯이 직업적 공산주의자들의 전향기와는 결이 다르다. 버트랜드 러셀은 여섯 명 저자들의 공산주의로의 전환에 내재된 고결한 열정은 양해될 수 있으나 실로네의 경우처럼 재전향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변할 수 없는 신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 바 있다.⁸⁾ 한국에서 『실패한 신』은 이 같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맥락의 복잡성과 여기에 내포된 전후 서구체제 갱신의 비판적 문제제기가 사상된 채 이념적 반전을 기도한 서구지성의 양심의 기록 또는 반공산주의 전향 선언으로 특칭해서 수용되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결함과 공산체제의 모순 및 실패의 증거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및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보증해주는 냉전텍스트로 의미화 되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R.크로스먼의 서문과 함께 편집체제상의 특징으로 인해 각기 상이한 공산주의체험과 전향의 이유, 전향 후의 양대 이데올로기(체제)에 대한 미묘한 입장 보다는 궤슬러가 붙인 책의 제목, 즉 ‘신’(소비에트사회주의 체제)의 실패를 추인하는 것으로 읽힐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 냉전텍스트로서의 유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 같은 면모는 공산주의체험 전향수기의 번역 수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패한 신』에 앞서 냉전텍스트로 수용되어 대공심리전 자료로 활용되었던 전 주미소련상무관 빅토르 크라브첸코(V. Kravchenko)의 망명수기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I Chose Freedom)』의 경우 그의 소련 비판이 반스타린주의에 입각한 내용이었으나 그것이 냉전의 맥락에서 서구 반공주의자들에 의해 소련체제를 악마화하기 위한 재료로 이용되었고, 한국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대내외 심리전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⁹⁾

8) 버트랜드·러셀, 「혁명 은 오다」, 양호민 역편, 『혁명 은 오다-공산주의비판의 제관점』, 중앙문화사, 1953.7, 31~33면.

9) *I Chose Freedom*의 번역 과정은 복잡하면서도 특이했다. 조선신문협회이사장 및 합동통신사 사장 김동성이 해방 후 민간인으로서 최초로(여행허가증 제1호) 미국언론계 시찰을 위해 도미했을 때(1946.10) 이 책을 구입한 후 김을한이 주재한‘국제문화협회’에서 번역에 착수하는데, 미군정 하에서 번역출판을 위해 미공보원 책임자 제임스 스튜어트와 교섭 후 그가 미 국무성에 의뢰해 저자의 동의를 얻어 10명의 번역자가 분책해 번역을 한 뒤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전2권, 1948~49,

『실패한 신』의 한국적 수용의 특징은 서구와 동시기에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번역을 통해서 텍스트의 성격이 거듭 재맥락화 되었다는데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용과도 차이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이른 1950년에 번역 소개되었으나(村上芳雄, 鎌田研一 共訳, 『神は躓く』, 青溪書院)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고,¹⁰⁾ 중화권의 경우는 대만에서 『破滅了的信心』(李省吾 譯, 華國出版社, 1950), 『追求與幻滅』(蕭閑節 譯, 自由世界出版社, 1950)과 홍콩에서 『坦白集』(齊文瑜 譯, 友聯出版社, 1952)이 신중국 성립 후 순차적으로 번역되어 유통된 바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 여러 저본의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지드, 스펀더, 퀴슬러, 실로네, 라이트 등의 또 다른 문학작품의 번역출판과 결합되어 『실패한 신』의 수용이 다양하게 굴절·변용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 같은 번역 수용이 지닌 영향의 범위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수용의 장기 지속성과 더불어 번역주체 또는 전신자(단체)들의 사회문화적 위상 및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식인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남지식인과 문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다.

이원식 역, 국제문화협회)로 출간되었다. 제1권 초판 3천 권이 바로 매진되고 판을 거듭하여 46판까지 발간된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한국전쟁 전까지 5~6만 부가 간행) 서울중앙방송국의 대북심리전방송에서 2달간 낭독되었다(1949.5~7, 낭독자는 토월회 출신 배우 이백수). 역자로 제시된 이원식은 가공의 인물이다. 이 텍스트의 번역에 대해서는 김을한,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경향신문』, 1956.2.2.~11) 참조.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문화협회는 동경에서 발족된 조선문화사(1939.4)의 후신으로 해방 후 월간 『국제정보』 발간과 김동성의 『미국인상기』, 정한경의 『조선인 조선에 오다』, 김구의 『토왜실기』 등과 G.오웰의 『동물농장』(김길준 역), W.터글러스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박노춘 역), 처칠의 『제2차세계대전회고록』(주요섭 역) 번역 등 왕성한 출판활동과 함께 한미 문화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한 문화기관으로 주목을 요한다. 특히 변영태의 『영문조선동화집(Tells From Korea)』(1946)는 해방 후 우리 문화를 외국어로 번역 소개한 최초의 사례로 특기할 만하다.

- 10) 일본에서 『실패한 신』의 번역은 주로 무라카미 요시오(村上芳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950년 번역 외에 『神は躓く』(国際文化研究所, 1956), 『神は躓く: 西歐知識人の政治體驗』(ベリカン社, 1969) 등이 그에 의해 순차적으로 번역된 바 있는데,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1969년 번역본에서는 체제상 분류, 즉 入黨者達(퀴슬러, 실로네, 라이트)과 共感者達(지드, 피셔, 스펀더)로 변화를 준 것이 다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실패한 신』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1950년에 번역된 『神は躓く』에 대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서평(『クロスマン編神は躓く』, 『人間』 5-12, 1950.12)이 눈에 띈다.

본고는 문화냉전이란 분명한 의도에 의해 기획·탄생한 『실패한 신』이 한국에서 번역되는 맥락과 그 수용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실패한 신』이 지닌 냉전텍스트로서의 의의 및 장기 지속적인 변용의 냉전정치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냉전과 그 콘텐츠의 세계적 연쇄, 특히 CIA-문화자유회의-문충 북한지부, 문화자유회의한국본부, 사상계사, 펜클럽한국본부 등 다채널적인 세계/한국의 냉전문화네트워크 접속과 그것의 한국적 굴절에 개재된 냉전주체성을 재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세계/한국의 수직적 네트워크가 일방적 관계로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패한 신』의 수용에서 생성된 특유의 냉전정치성은 한국의 냉전지식이 지닌 존재방식의 특수성을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다는 생각이다. 이는 『실패한 신』이 양심의 기록으로 특화된 것과 다른 한편으로 존재했던 국내의 다양한 전향의 기록들, 이를테면 국민보도연맹 가입전향자, 전시부역자, 전향남파간첩 및 비전향장기수, 월남귀순자(조총련 귀순자) 등의 전향서가 사상적 오점으로 이미지화 된 것과의 비교를 통해 전향의 기록들이 사상사적으로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재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패한 신』의 냉전정치성 탐구는 해방기 남한사회에서 복수의 탈식민적 대안체제를 구상하는데 유력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던 사회주의(이데올로기) 및 소비에트체제를 둘러싼 사상전이 냉전체제의 규율 속에 어떻게 단절·재편되는가를 밝히는 데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실패한 신』이 시차 없이 당시로서는 냉전의 주변부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에 수용되어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서 진영 전쟁 및 각국 냉전사회화의 효과적인 무기로 기능하는 양상을 비교해볼 수 있는 드문 냉전텍스트라는 점도 환기해둘 필요가 있다.

II. 냉전텍스트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및 동아시아의 문화냉전

『실패한 신』은 1952년 9월 두 경로로 한국에 처음 소개된다. 국민사상연구원이 발간한 『사상』에서의 일부 텍스트 번역으로, 다른 하나는 을유문화사의 완역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을 통해서다. 일본 및 대만에 비해 조금 늦게 소개된 셈인데, 한국전쟁 기간에 수용되는 공통점이 있다. 『사상』에서의 번역은 『실패한 신』에 수록된 「앙드레 지드-그가 본 공산주의」(이시호 역, 창간호, 1952.9), 「아서 콕슬러-내가

본 공산주의」(허현 역, 제2호, 1952.10) 등의 전제와 『실패한 신』의 필진이었던 루이스 피셔의 「스탈린의 생과 死」(이시호 역, 제4호, 1952.12)가 연속 기획으로 게재되었다. 에니드 스타키를 전언자로 제시한 다른 번역서와 달리 앙드레 지드의 에세이 필자를 그녀로 명기한 것이 특징적이다(지드와 스타키의 필자 略傳을 함께 수록). 피셔의 글은 그의 저서 『스탈린의 생과 사』를 초역한 것으로, 스탈린이 크렘린에 입성하기까지 과정과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의 동지적 관계 및 레닌 사후 소비에트권력투쟁사를 스탈린이 소비에트정권을 장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다. 일종의 스탈린 전기(평전)로,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 혁명가가 아닌 “약자를 모멸하는 원시인”, “권력의 노예”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¹¹⁾ 피셔의 스탈린전기는 독재, 개인 숭배, 대량학살, 공포정치로 요약되는 스탈린식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실패한 신』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사상』이 장간호부터 『실패한 신』을 번역 연재한 의도는 편집후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상적 고민을 지닌 지식인들에게 사상적 좌표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1952.10, 157면). 문교부 산하 국책 사상연구기관으로 1951년에 창설된 국민사상연구원은 전시 대공전쟁의 승리를 위한 사상전을 다방면으로 전개한 바 있는데, 『실패한 신』의 번역은 유물변증법과 공산주의이론 비판을 중심으로 한 지방순회강연회 및 사상총서 발간 등 전시에 국민사상연구원이 주력했던 반공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¹²⁾ 특히 사상전의 주체이자 반공주의담론 생산의 주력이었던 지식인들에게 반공산주의 정당화의 이념적 근거로 전용된 서구지성의 전향 고백은 반공이데올로기를 접점으로 한 권력과 지식(인)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조되는 전시 진영전쟁 및 대내외 심리전에 효과적인 자원이었다.

11) 루이스·핏셔, 「스탈린의 생과 死」, 『사상』, 1952.12, 180~203면. 권력의 노예로 집약되는 스탈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화는 그의 사후에도 계속 재현되는데, 특히 스탈린 격하운동의 흐름 속에 체코 태생의 J·버너드·허튼의 스탈린전기(전2권)가 「스탈린의 사생활」(『동아일보』, 1961.11.30~62.2.5, 58회)로 (발췌)번역되는 과정을 거치며 냉전기 한국에서 스탈린은 무자비한 독재자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른다. 해방기 스탈린의 『투쟁과 승리』(서울정치교육사 역, 1946)를 비롯한 조선말스·앵겔스·레닌연구소 및 사회과학총서간행회의 스탈린 저서들에 대한 번역출판을 통해서 부각된 사회주의혁명가로서의 스탈린 형상은 급격히 단절·소거될 수밖에 없었다.

12) 전시 국민사상연구원의 활동 및 담론생산의 구체적 면모에 대해서는 김봉국, 「1950년대 전반기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과 활동」,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31~43면 참조.

실제 한국전쟁기에도 지식인들의 사상적 동향은 반공주의로 단일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시부역자들의 수기를 통해서 그 유동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양주동은 당시의 빨갱이를 본질적 빨갱이와 일시적이고 부분적 빨갱이, 즉 일시적 피현혹자와 기회주의적 빨갱이로 세분한 가운데 지식인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정신적 동반자들이 회개와 전향이 가능하고 오히려 멸공의 선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³⁾ 지식인의 거반과 민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기회주의적 빨갱이를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 것에 비해 동반자들, 그의 명명법으로 하면 ‘자유주의 좌파’를 우선적인 포섭 대상으로 삼은 것이 흥미로운데 당시 잔류파들의 공통된 주장이기도 했다.¹⁴⁾ 양주동의 의견에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멸공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두 가지 입론의 위험성, 즉 공산주의 이론이나 목적은 좋으나 실체가 나쁘다거나 공산당을 일소하려면 민중 생활의 개선과 향상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역자들의 변명적 언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수립 후 전향의 강제 속에서 여전히 비반공주의적 태도와 대한민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지식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문화예술계 내부에서 전향자들에 대한 의혹(위장 전향)의 시선이 팽배했던 저간의 사정 또한 알 수 있다. 『실패한 신』 저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일정 정도 유사한 당시 자유주의 좌파 남한지식인들의 사상적 좌표 설정에 『실패한 신』의 전향고백은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는데 유익한 텍스트로 작용할 여지가 컸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전폭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한국전쟁 기간 공산주의의 실지 체험이었다.

을유문화사版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은 번역의 저본과 역자를 밝히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번역의 배경, 의도 등을 담은 역자 서문 혹은 후기도 없다. 그렇다고 번역이 부실한 것은 아니다. 전역(全譯)이고, 당시 유통되었던 영어판 및 다른 번역본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표제의 개제, 목차 배열의 재구성 즉, ‘안에서 본 공산주의’(괴슬러, 실로네, 라이트) 및 ‘밖에서 본 공산주의’(지드, 피셔, 스펀더)로

13) 양주동, 「共亂의 敎訓」, 오제도 외, 『敵禍三朔九人集』, 국제보도연맹, 1951.4, 11~18면.

14) 잔류파였던 고희동은 북한 점령하에서 적비(赤匪)보다도 더 악독했던 것이 북한에 부화뇌동한 부류였다고 하며 이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고희동, 「나의 체험기」, 『신천지』, 1951.1, 49면.

구분하여 변화를 준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목차 재구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패한 신』 번역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명명이 다를 뿐 크게 공산당 입당(문)자/동반(조)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범주화에 따른 양자의 구분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만들어낸 텍스트 수용의 굴절을 드러내주는 한 예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는 전향, 부역 등을 기제로 한 (민족)반역프레임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가동되는 국면에서 이 같은 구별 짓기가 사상적 내부평정 작업의 도구가 되면서 국민의 내·외집단을 재구성하는데 실효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 진영론적 냉전인식의 투사이자 호명에 연루된 존재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을유문화사가 전시에 『실패한 신』을 처음으로 완역한 배경은 무엇일까? 해방 후 ‘조선문화총서’ 및 ‘대학총서’ 기획과 학술지 『학풍』 발간(1948.9~50.6) 등 자주적 (한)국학의 전문적인 학술 출판을 지향했던 을유문화사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육이 전소되는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전쟁수기 및 미 공보원의 후원 아래 미국 (문학)서적의 출판을 통해 재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신』을 번역한다. 번역의 취지는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의 속표지에 제시된 『실패한 신』에 대한 성격 규정, 즉 “이 책은 공산주의의 허울 좋은 약속을 믿고 거기 가담 또는 추종하다가 그 진상을 실지로 보고 크게 실망한 후 다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찾아서 전향하여 온 6명의 세계적 저명인사들의 숨김없는 양심의 기록”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전향의 양심기록임을 강조하고 또 이를 특화시켜 광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시 사상전의 용도로 번역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을유문화사는 한국전쟁 기간 사상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동원되었던 전쟁체험 수기를 다수 출판했다. 서울수복 직후 종군기자들의 수기를 집성한 『동란의 진상; 괴뢰군 선전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한국문제연구소 편, 1950.11. 국방부정훈국검열필)을 발간해 대북 역선전전의 자료를 생산·제공하는가 하면, 전시 잔류파 또는 북한에 강제 동원된 경력을 지닌 지식인들의 체험수기 『나는 이렇게 살았다: 수난의 기록』(채대식 외, 1950.12)을 출간해 『고난의 90일』(유진오 외, 수도문화사, 1950.11)과 더불어 전시 반공프로파간다를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국가(합동수사본부) 차원의 심리전 기획에 의해 발간된 부역문인들의 체험수기 『敵禍三朔九人集』(국제보도연맹, 1951)보다 앞선 것으로 북한 치하의 공산주의의 지배를 경험했던 각계 지식인들의 생생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당시 긴급하게 요구되었던 체제우월성 선전과 대공전선의 강화를 독려하는데 적극 활용된 가운데 대중적 수용의 폭도 광범했다.¹⁵⁾ 나아가 이 체험수기가 지닌 심리전적 효과에 주목한 미국의 문화냉전 전략이 개입되면서 이 텍스트는 자유세계로 전파되어 지구적 냉전심리전 수행의 텍스트로 이용되는 과정을 거친다.¹⁶⁾

『실패한 신』의 번역은 이 같은 의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전의 전향 계다가 한국전쟁과 무관한 국외자의 공산주의 전향기록인 『실패한 신』이 열전의 와중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와 증오로 점철된 부역자들의 체험수기와 결합되어 적의 이미지 창출을 통해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담론 효과를 발휘하며 냉전적 사유와 인식이 본격적으로 재구조되는 전환점에 을유문화사판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패한 신』의 저자들은 한국에서 열렬한 반공투사로 재정위된다. 이로 볼 때 한국전쟁은 반공산주의 냉전지식의 생산 및 전파와 유입이 공존했던 전시장이자 세계적 문화냉전의 새로운 발원지였다고 할 수 있다. 옥창준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The Reds Take a City』가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 CIA의 이탈리아 좌파진영에 대한 분열 공작으로 활용되는 양상과, 다른 한편에서는 이탈리아공산당 창립의 주축 멤버이자 반스탈린주의자로 변신한 이냐치오 실로네의 전향수기가 포함된 『실패한 신』의 전시 한국 수용이 교차하는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연한 조우로 보기 어렵다. 1951년 파리에서 처음 공개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1951)에 대해 자유진영(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로, 프랑스공산당은 학살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각각 거센 비판을 제기했던 것도 한국전쟁이 진영 간 문화냉전의 소재로 활용된 또 다른 사례다.

크라브젠코의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I Chose Freedom)』가 다시 번역되는 맥락도 마찬가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텍스트는 소련공산당원이자 주미 소련상무관

15) 「세월따라 명멸한 독서계의 별, 베스트셀러 30년」, 『동아일보』, 1978.8.11.

16) 『나는 이렇게 살았다』와 『고난의 90일』에 수록된 체험수기의 일부를 번역하여 새롭게 구성한 『The Reds Take a City』(렛거스대학교출판부, 1951)의 지구적 전파와 동시에 그 영역본 만화 『동순이와 순최』로 변주되어 국내에 귀환되는 전반의 맥락에 대해서는 옥창준·김민환, 「사상심리전의 텍스트로서 한국전쟁-자유세계로의 확산과 동아시아적 귀환」(『역사비평』 118, 역사비평사, 2017) 참조.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1980년대 을유문화사가 문고본으로 재판하는데(박순천 외,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을유문화사, 1988), 이 문고본에는 기존 12편의 수기에다 김팔봉(「인민재판 이후」)과 모윤숙(「회상의 창가에서」)의 전시 체험수기 두 편이 추가 수록되었다.

의 요직을 역임한 저자가 미국 망명 후 스탈린 치하의 소련 현실을 해부·비판한 수기로 발간 직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곧바로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널리 수용된 바 있다. 대북심리전방송을 통해 북한 지역으로까지 전파된 독특한 사례이기도 했다. 이 텍스트는 민족국가건설을 위한 복수의 노선과 전망이 각축을 벌인 해방기 정치현실에서 사이비적 소련 소개 서적들과 달리 소련 공산당 내부자에 의한 전체주의적 크렘린독재의 실상을 상세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련의 제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지침서로 간주되었고,¹⁷⁾ 당시 반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공산당관계자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소련인이 쓴 소련의 진상’이란 문구가 모든 지면 광고에서 대서특필된다. 동서냉전의 격화와 민족분단이 제도화된 국면에서 번역 출판됨으로써 크라보젠코의 미국으로의 탈출·망명은 그도 적시하고 있듯이 ‘공산주의 체제의 위선, 혼란, 비참으로부터의 해방’(제12장)으로 평가된 가운데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과 서구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반공심리전 텍스트로 활용되었다.¹⁸⁾ 더욱이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소송사건, 즉 프랑스공산당 기관지(『文學界』)가 이 텍스트를 반소적인 프로파간다를 내포한 위작(僞作)이며 크라보젠코는 반역자라는 기사를 실었고 이에 대해 크라보젠코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동서 진영의 문화냉전으로 비화되고¹⁹⁾ 결국 격렬한 대 논전을 거쳐 저자가 승소함으로써 이 수기는 반소비에트 서적을 대표하는 텍스트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얻게 되는 가운데 프로파간다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었다.²⁰⁾

이 같은 일차적인 수용을 거친 텍스트가 전시에 다른 판본, 즉 문고판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1951.7)로 재번역되어 또 한 번의 의미 변용을 거친다. 사회주의 자체를 비판·부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가운데 사회주의와 인륜을 배신한 스탈린체제를 고발하는데 중점을 둔 이 텍스트는 한국전쟁을 통해 공산주의 폭력성에 대한 직접

17) 변영태, 「신간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동아일보』, 1948.9.21.) 및 西庭生, 「신간평:철의 장막 해명,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자유신문』, 1948.9.20.)

18) 중국공산당 치하에서 탈출한 章丙炎의 수기 『공산당 치하의 중국』이 1949년 공보처에 의해 번역·출판되어 대공프로파간다용으로 동원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이 수기는 “중국판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의 서곡”으로 평가되면서 공산주의체제의 반인륜적 폭력성을 선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章丙炎, 허우성 역, 『공산당 치하의 중국』, 공보처, 1949.10, 2면.

19) 김을한, 『인생잡기』, 일조각, 1956, 159~161쪽 참조.

20) 이 소송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의 저자 크라부첸코 소송사건』(『자유신문』, 1949.7.13.~15)을 참조.

경험과 결부되면서 공산주의이데올로기 자체가 인류의 적이라는 냉전진영론의 도식을 만들어내는 근거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재번역의 의도가 이러한 낙인찍기에 있었고, 그것이 멸공의 당위성을 선양하는데 동원되면서 전시에 냉전인식을 전파·확산시키는 기여를 한다.²¹⁾ 이와 더불어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9월 극단‘자유극회’가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를 연극화하여(연출:허석) 시공관을 비롯한 다수의 극장에서 상연됨으로써 전후 대공 전략심리전의 본격화에 기여했다.²²⁾

『실패한 신』을 비롯한 일련의 반소비에트서적은 전시 및 전후에 지식인들에게 반향이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월남지식인들에게는 체제 선택을 감행한 자기신념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나아가 냉전반공에 헌신하는 자신의 행적을 입증해주는 알리바이로 수용된 점이 눈에 띈다. 선우휘는 전시 최전선에서 장교로 근무할 때 영어본과 일본어본 두 권의 『실패한 신』을 홀린 듯이 탐독했으며, 이 독서경험이 이후 자신의 삶과 공산주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회고한 바 있다.²³⁾ 그 이유로 『실패한 신』에 실린 전향 서구지성들이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극복했다기보다 체험에 의해 정서적으로 극복했다는 점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피어린 체험기가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과격사상인 파시즘으로 경사되는 것을 자제하는 힘을 제공해주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자신이 월남자로서 공산주의에

21) 빅톨 크라브첸코, 허백련 역,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동해당, 1951.7, 123~124면. 이 번역본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연재된(1946.6~11) 것의 축소판 번역인데, 역자는 멸공전선 강화의 시급성에 맞춰 출판과 보급에 유리한 엽가의 문고본으로 번역 출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크라브첸코의 망명수기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의 번역은 해방~한국전쟁 기간 반소비에트 서적의 수용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을 요한다. 덧붙여 크라브첸코의 수기의 선별적 수용, 즉 미국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비판한 크라브첸코의 또 다른 저작 *I Chose Justice*(1950)가 미국에서 철저한 무시와 함께 그가 적색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매도된 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텍스트에 대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크라브첸코의 저술에 대한 언급은 박노자의 소개 정도가 있을 뿐이다(www.redian.org, 2013.1.30).

22) 1953년 9월 16일 시공관에서 초연된 뒤 동양극장, 평화극장 순으로 하루 3회씩 재공연되어 성황을 이뤘다. 당시 주인공 배역이었던 변기중은 반공극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가 영화에 빼앗겼던 많은 연극팬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들이는데 성공했으며 한국연극을 중흥·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변기중, 「홀려간 무대①」, 『매일경제신문』, 1969.10.31.

23) 선우휘, 「『실패한 신』은 누구인가」, 『조선일보』, 1983.12.4. 선우휘는 당시 자신이 읽은 일본어번역본의 제목을 “신은 무릎을 꿇다”로 기억하고 있는데, 村上芳雄, 鎌田研一 共訳, 『神は躓く』(青溪書院, 1950)을 말한다.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올 수 있었던 원천이 『실패한 신』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향기가 자신이 파시즘과 같은 과격사상으로 함몰되지 않게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자평은 음미할 필요가 있다.²⁴⁾ 월남문학인 김은국(리처드 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1955년 미국 유학(Middlebury College) 때 『실패한 신』을 처음 읽고 왜 자신이 공산당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이 책에서 얻었다며 이를 통해 획득한 신념이 『순교자』의 주제의식과도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²⁵⁾ 선우회와 김은국 모두 『실패한 신』가운데 특히 코뮌니즘을 가장 인간적인 사회로 맹신했던 실로네의 공산주의로의 전향 및 공산주의의 독재와 스탈린의 반혁명에 대한 체험 그리고 재전향의 고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리고 최정호는 앙드레 지드의 『소련기행』, 크라보젠코의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등 반소비에트서적의

24) 이 부분은 상당수 월남지식인들의 월남 후 사상체계와 행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조가 된다는 판단이다. 김건우는 선우회가 철저한 극우반공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단적 형태로 그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던 까닭이 그의 삶과 생각에서 지역주의라는 또 하나의 비합리적인 거칠거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 책방, 2017, 101면), 그의 반공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일정부분 내접되어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전개했던 맥락을 파악하는데 「실패한 신」의 독서경험과 이로부터의 감화가 또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로 김동명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해방 후 북한에서 반공주의 활동(함흥반공학생의거)에 가담했다가 쫓겨 월남한 그가 월남지식인 중 가장 극단적인 반공주의담론을 설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 및 정치투쟁을 전개한 데에는 김재준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의 독특한 이데올로기관이 작용했다. 칼 슈미트의 「적과 동지」라는 냉전이분법적 사유체계와 현실인식은 공산주의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적색전체주의의 안티테제로서 민주주의(체제)에 있다는 논리구조를 형성했고 그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극단적 적대와 함께 반민주주의적인 내부의 적, 특히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실천적 투쟁으로 전개되는 양상은 『실패한 신』을 관통하는 공산주의(체제) 인식과 여러모로 닮아 있다(김동명, 『적과 동지』, 창평사, 1955 참조).

25) 김은국, 「세계지성 6인의 공산체험기」, 『경향신문』, 1983.8.23. 『순교자』가 1964년 초판 이래 15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고 한국에서는 연극으로 무대상연이 이루어진 후 1965년 영화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감독:유현목), 그 과정에서 원작(작가)의 공산주의 찬양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보부 검열 통과 직후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기독교계 일부에서 순교자에 대한 모독과 공산주의 찬양을 문제 삼아 상영중지 요청을 제기했으나(「기독교계에 순교자 파문」, 『동아일보』, 1965.6.29) 기각되었고, 영화 상영 도중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여 보안상 유해롭다는 판단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CIA와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CIA파견 검열관의 검열을 거쳐 보안상 문제가 없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순교자」 검열서류 참조).

독서경험이 당시까지 진보의 동의어로 여겼던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고, 그런 심적 동요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에서 자행된 ‘남로당계속청사건’(1953.8)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모든 기대를 완전히 불식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마음속에서 ‘내 나라’로 받아들였다.”).²⁶⁾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 해방 후 이데올로기적 현실정치에의 참여 여부를 떠나 지식인들의 의식 및 태도의 저변에는 사회주의이데올로기와 소비에트 및 사회주의체제로 변환한 북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분단의 제도화 국면 이후로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간취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전쟁을 계기로 소비에트에 대한 감상적 동경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소비에트관련 텍스트에 관한 수용사의 변화를 말해준다. 해방직후 남북을 통틀어 소비에트 열풍이 거세게 일었고,²⁷⁾ 특히 복수의 정치적 전망이 각축을 벌인 남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 저작의 광범한 수용 및 소비에트(체험)기행기를 중심으로 한 반소비에트/친소비에트(반미)의 이념적 분립 및 대립과 그에 따른 프로파간다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²⁸⁾ 1930년대에 발간된 앙드레 지드의 소련기행문과 이와 대척적인 시각으로 기술된 줄리안 헉슬리의 소련기행문뿐만 아니라 동시기 에드가 스노, 이태준의 소련체험기 등이 출판 소개되면서 소련에 대한 이해·인식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 바 있으며,²⁹⁾ 그 흐름이 정부수립을 기점으로 특히 사상적 내부평정작업의 광풍이 몰아

26) 최정호, 「내가 진보를 못 따라가는 까닭」, 『동아일보』, 2006.2.9. 남로당계속청사건은 북한의 스탈린식 피의 숙청이라는 반인간적 폭력성과 대표적 냉전금기였던 월북 의제가 착종되어 남한문화계에 미묘한 파장을 초래했다. 특히 미제스파이로 단죄·숙청된 임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은폐/생환의 모순성 속에 냉전문학사를 저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서는 이봉범, 『『북의 시인』과 냉전 정치성:1960년대 초 한국 수용과 현해탄 논전을 중심으로』, 『한국연구』 6, 한국연구원, 2020 참조.

27) 해방직후 북한에서의 소련에 대한 인식과 역사화에 대해서는 남원진, 「해방기 소련에 대한 허구, 사실 그리고 역사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참조.

28) 이에 대해서는 이형선, 「해방공간, 소련·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 『인문과학연구논총』 34(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참조.

29)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1946~48)을 지낸 J.헉슬리의 『科學者が 본 蘇聯』(옥명찬 역, 노농사, 1946.12, 인민문고④)은 헉슬리가 1931년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한 직후 출간한 소련기행기(*A scientist among the soviets*, 1932)로 당시 제1차5개년계획 시기 소련의 실상에 대해 과학적 부면을 통하여 얻은 인상을 위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평한 태도로 기술한 특징이 있다. 그가 이 기행기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당시 발전도상에 있는 그리고 다른 국가에

닥친 전향국면과 맞물려 적대적인 반사회주의·반소비에트적 인식을 주조하는 냉전 텍스트로 편향되는 과정을 거쳤다.³⁰⁾ 중국에 관한 텍스트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공론 장에서의 철저한 배제와 더불어 이러한 냉전적 수용의 지배적 흐름 속에도 균열의 지점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실패한 신』을 비롯한 일련의 소련체험 전향기의 수용이 방증해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선우휘나 최정호의 사례처럼 ‘지식’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접근이 우세했던 지식인사회의 사회주의(체제) 수용 양상의 일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미지의 대상이었던 공산주의의 현실 체험, 한국전쟁은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동한 가장 강력한 촉진제였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모두 공산주의자가 된다.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모두 반공주의자가 된다.’는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의 발언을 다시금 음미하게 만든다.

문학(인)에서도 『실패한 신』은 반공산주의 문학의 당위성 및 반소비에트·반파시즘적 휴머니즘의 민족문화론을 정초하는데 유력한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백철은 『실패한 신』의 저자들과 앙드레 말로, 토마스 만 등 서구의 저명한 문학자들이 코뮌리즘경영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세계적 문학동향의 가장 주목되는 일로 평가한 뒤, 『실패한 신』의 전향기록들은 한국의 문학인들이 코뮌리즘에 반대·공격하는 것

비해 가장 앞선 새로운 소련의 과오와“實物敎訓”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113~116면). 혁슬리의 소련기행문은 백남운이 주도한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객관적인 소련 이해의 중요한 텍스트, 즉 ‘과거에 소련을 시찰한 사람들이 대체로 자본주의사회를 기초로 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회에도 묵은 태두리를 씌우라는데 반하여 그가 과학적인 냉철한 태도로 새로운 각도에서 관찰한 것은 ‘안드레 지-드’와 전혀 대척적”(『민족문화』, 민족문화연구소, 1946.7, 56면)이라고 평가한 뒤 소련이 걸어온 길을 당대적 정세 속에서 반성하고 관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의를 부여했다. 역자 옥명찬도 민족문화연구소의 핵심 멤버였다. J. 혁슬리는 『멋진 신세계』(1932)의 작가 A. 혁슬리의 친형이다.

- 30) 그 같은 양상은 한국전쟁 이후 저술된 소련기행기의 번역에서도 관철된다. 가령, E·스티븐슨의 『내가 본 蘇聯(敵과 友人)』(강한인 역, 自由舍, 1961)과 H·스트랄렌의 『소비에트 旅行記』(윤형중 역, 탐구당, 1964)의 경우 스탈린 사후 1950년대 후반 소련사회의 발전상과 소련인의 생태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에 주력한 가운데 소련을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소련체제의 약점을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제도적 우수성에 비추어 분석·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자유진영의 체제우월성을 보증해주는 냉전텍스트로 굴절·수용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다만 소련에 대한 접근법의 부분적 변화, 즉 이전의 맹목적인 반소반공에서 벗어나 지피지기의 차원에서 소련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피상적인 공산주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의 정당성을 일층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이자 휴머니즘적 민족문학의 성격을 강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이 현대적인 세계성과 통하는 것임을 방증해주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³¹⁾ 백철은 1952년부터 경직된 냉전논리와 관점을 달리해 문학비평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일군의 서구 작가들이 보여준 새로운 이념과 윤리의 모색을 현대의 위기와 불안의식으로 읽어내고 이를 사상적·문학적 전거로 삼아 나름의 세계문학의 전위와 연결되는 민족문학론을 정초하고자 했다.³²⁾ 그가 『실패한 신』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패한 신』을 반공산주의 텍스트로만 독해하지 않고 이 텍스트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한 가운데 공산주의, 파시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명적 폐해를 극복하는 인간해방의 문학을 대안적 문학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양자택일적 냉전논리가 횡행하는 당시의 문학 장에서 『실패한 신』에 대한 이색적인 수용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시 『실패한 신』의 한국적 번역·수용을 지평을 넓혀 접근하면 두 가지 의미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실패한 신』의 번역이 문화냉전의 세계적 연쇄와 이를 매개로 한 냉전지식의 한국적 수용의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준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로서는 냉전의 주변부였던 동아시아 국가들에 거의 동시에 번역되면서 이 텍스트가 동아시아 지역냉전에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전자는 CIA의 영향 아래 있던 문화냉전기구인 문화자유회의와 일정한 연계 속에서 『실패한 신』의 한국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오영진과 문화자유회의 간 네트워크가 있다. 오영진은 『주간문학예술』(1952.7)의 지면을 통해 文總 북한지부 명의로 문화자유회의주최 파리국제예술제에 대한 축전을 보내는 것으로 문화자유회의와의 교섭을 사전에 타진한 상태에서 1952년 9월 유네스코예술가대회 참석 후 곧바로 문화자유회의의 파리사무국을 방문 드니드 루즈몽, 나보코프 니콜라스, 마이클 조셀슨 등 주요 간부들과 면담하는 것을 계기로 문총북한지부와 문화자유회의의 채널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교류 및 지원 사업이 실행되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문화자유회의의 한국위원회 설치도 성사되지 않았다.³³⁾ 여기에는 문화자유회의의 초기사업 방향이 명확하게 정

31) 백철, 「인간성 옹호와 문학」, 『조선일보』, 1956.6.26.

32) 한수영, 「1950년대 한국 문예비평론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27~29면.

초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오영진과 국민사상지도원의 관계 및 문충지도부와의 갈등, 오영진과 아시아재단과의 협력 관계 등 국내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럼에도 문화자유회의의 이념적 지향과 노선에 공명한 가운데 문화자유회의의 관련 소식과 원고, 문화자유회의의 산하 잡지들에 수록된 글 및 소속 저명지식인들의 저술에 대한 번역 소개가 오영진이 관장하고 있던 『주간문학예술』과 그 후신인 월간 『문학예술』, 중앙문화사(1952.6 등록) 등을 매개로 195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세계적 문화냉전기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서구 냉전지식이 한국에 전파·보급되는 통로가 개척된 가운데 그것이 한국 문화냉전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회로가 마련되었던 것이다.³⁴⁾ 주한미공보원에 의한 냉전 지식 보급과는 다른 경로였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실패한 신』의 한국 번역은 이러한 국제적 문화냉전네트워크와 채널에 의한 냉전지식의 세계적 연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상』지의 연재는 오영진을 매개로 한 국민사상지도원과 문충북한지부의 긴밀한 지역적·인적 관계에서 가능했다. 오영진을 중심으로 박남수, 원응서, 한교석, 장수철 등 전시 월남문학인을 주축으로 조직된 문충북한지부가 국민사상지도원으로부터 독자적인 물적 지원을 받을 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국민사상지도원의 사상전 추진과정에서 공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을유문화사의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의 번역출판은 이 같은 해외네트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공보원과의 관련성 또한 희박하다. 을유문화사가 주한미공보원 및 록펠러재단 등의 후원에 힘입어 추진한 서구 사상·문학서 번역 사업은 1954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역자를 비롯해 번역과 관련한 기초정보를 전혀 밝히지 않은 관계로 추단하기 어려우나, 발간의 시점과 배경을 고려할 때 전시사상전의 시급성 속에서 최신냉전지식의 수용이라는 당시의 흐름과 나름의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양호민이 역편(譯編)한 『革命은 오다:共産主義批判의 諸觀點』(1953.7)가 주목된다. 이 역편은 역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시사상전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기획된 것으로서 공산주의가 병폐한 자본주의의 대안적

33) 초창기 문화자유회의와 오영진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진석, 「문화냉전기구의 형성과 변동 연구, 1954~1968」,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174~179면.

34) 이에 대해서는 이봉범, 「냉전과 월남지식인, 냉전문화기획자 오영진」, 『민족문화사연구』 61, 민족문화사학회, 2016, 195~237면 참조.

사상·혁명운동이 아니며 소비에트의 국가적 이기심에 기초한 침략의 이데올로기로 전략했다는 인식 아래 이론적 차원의 공산주의비판을 지향한 가운데 궤슬러, 러셀, 루즈몽, 야스퍼스 등 당대 세계적인 지성 7인의 각기 다른 공산주의비판(서)을 묶어낸 것이다.³⁵⁾ 그런데 이 텍스트의 필자 대부분이 초창기 문화자유회의의 핵심 회원들이었고, ‘저자略傳’에 러셀의 글『혁명은 오다 (Came the Revolution)』가 『실패한 신』의 서평 형식으로 쓴 논문임을 밝힌 점과 이 텍스트가 중앙문화사에서 발간되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역편이 『실패한 신』과 공조를 염두에 둔 문충북한지부와 문화자유회의의 파리사무국의 협력 사업으로 기획된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⁶⁾ 즉 전시 한국에서 『실패한 신』의 번역 수용은 그 저변에 세계적 문화냉전네트워크가 작동한 가운데 냉전지식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적 변용이 이루어진 실례인 것이다. 『실패한 신』과 문화자유회의가 영국정보국과 CIA가 기획한 문화냉전의 전략적 쌍생아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³⁷⁾ 을유문화사판『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의 번역이 이러한 맥락과 연관하다고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러셀의 서평 논문이 『실패한 신』의 수용에 하나의 지침서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들은 찢레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다. 맑스나 레-닌의 저서에는 확실히

35) 양호민 역편, 『革命은 오다: 共產主義批判의 諸觀點』, 중앙문화사, 1953.7, 1~2면. 이 텍스트에서는 아서 궤슬러의 「소베트 神話와 現實」, 버트런드 러셀의 「革命은 오다」, 드니 드 루즈몽의 「自由의 內省」, 해럴드 라스키의 「獨裁主義의 效果」, 칼 야스퍼스의 「맑시즘 批判」, 고이즈미 신조(小堀基二)의 「共產黨宣言의 古今」, 제임스 버넘의 「世界制覇를 위한 鬪爭」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맨 뒤의『필자略傳』(198~207면)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저술 시기가 다르고 全譯, 일본어중역 등 번역의 형태가 다양하나 공산주의 및 소비에트에 대한 비판적 해부라는 공통점이 있다.

36) 최진석, 앞의 논문, 177면.

37) 잘 알려졌듯이 세계적 문화냉전기구로서 문화자유회의의 권위와 활동은 1967년 『인카운터』에 CIA자금 10년간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 그렇다고 문화자유회의가 수행한 것과 같은 문화냉전 전략이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이언 매큐언(Ian McEwan)의 2012년 작 『스위트 투스』(민승남 역, 문학동네, 2020)는 1970년대 초 비밀작전에 투입된 영국보안정보국 여성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장편으로(스파이소설) 지식인들을 후원하여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고 자유세계를 옹호하는 입장이 지적으로 높이 평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영국정보국이 추진한 비밀작전의 내막을 상세하게 파헤치고 있다. 매큐언은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냉전시대 벌어진 인카운터사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 CIA와 문화자유회의의 관계 그리고 문화자유회의가 전개한 문화전쟁이 거둔 성과가 언급되어 있다(157면). 비록 영국정보국이 벌였을 법한 가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문화자유회의의 구사했던 문화냉전이 또 다른 버전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포도넝쿨보다 찢렛덤불이 더 무성하고 있다.”³⁸⁾는 메타포가 한국(선우휘, 백철 등) 및 대만의 수용과정에서 자주 인용된 가운데 『실패한 신』을 반공산주의 선언으로 변용시키는 또 다른 근거로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실패한 신』은 큰 시차 없이 동아시아국가들에 번역되어 각기 다양한 변용 양상을 나타낸다. 일본의 수용은 『神は躓く』(村上芳雄, 鑓田研一 共訳, 青溪書院, 1950) 출판 직후에 발표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의 서평(「クロッスマン編『神は躓く』, 『人間』, 1950.12)을 통해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 요시미는 이 텍스트가 고백체의 자기변호를 용서하지 않는 엄격함으로 인해 독자에게 공감과 반발의 폭풍을 일으키는 책이라는 인상과 함께 반공적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이미 번역된 크라보첸코, 조지 오웰, 게오르그 등의 반소비에트적 계열의 문학이 지닌 현대적인 의미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 이유를 맹목의 공산주의자나 반공선전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피투성이 체험 속에서 생각한 영혼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들 저자들이 사회주의로의 전향은 서양민주주의의 허위와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국제적 정치현상이 공통적으로 작용한 산물이며, 재전향한 그들이 다시 서양민주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적색 제국주의에 대항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제3세력으로 고립되어 있는 현상은 식민지 문제, 경제적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서양민주주의의 한계와 더불어 이들 양심적인 지식계급의 영향을 배제한 크렘린의 분명한 실패를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이 텍스트는 중국의 사태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 때문에 스탈린과 대극에 위치한 간디에 끌리는 피셔와 같은 경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텍스트가 결국 민주주의의 진가를 증명해줄 것이라는 R.크로스먼의 믿음은 독단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가한다. 아울러 『실패한 신』을 당대 일본의 상황과 연관시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는 저자들이 경험한 것을 현재 일본이 경험하고 있다며 역사가, 정치가, 문학가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청년들이 꼭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전향문학과 같은 양심에 의거한 과거 실패의 경험을 말하

38) 버트랜드 · 랫셀, 「혁명은 오다」, 양호민 역편, 앞의 책, 32면. 이 메타포는 마르크스 · 레닌의 사상이 결코 인간해방의 희망적 복음을 줄 수 없으며, 이 희망에 기대 열렬한 사회주의자로 전신했던 수많은 지식인의 비합리성(가시 속에서 포도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비판한 것이다. 러셀은 이 논문에서 공산주의의 근본적 病因은 지적 · 도덕적 결함에 있으며, 소비에트체제 내부의 죄악은 모두 레닌 사상의 과오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피력한다.

지 않는 풍토를 개탄한다.³⁹⁾ 요시미의 서평은 『실패한 신』을 미국 점령하에서 정치적·사상적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의 상황과 중국전문가답게 신중국의 성립으로 조성된 동아시아 질서변동과의 관련 속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서구지성들의 공산주의 체험과 좌절의 고백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민주주의의 부활을 희망했던 기획 의도와 마찬가지로 요시미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패전일본의 민주주의적 전망을 타진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에서는 1950년에 두 번의 번역(초역) 출판이 이루어지는데, 『追求與幻滅』(蕭閑 節譯, 自由世界出版社, 1950)에 대한 殷海光的 장문의 서평(『자유중국』, 1951.3 수록)을 통해 수용의 일 측면을 파악해볼 수 있다.⁴⁰⁾ 그는 지구상의 사회주의(체제)는 천국이 아닌 지상의 지옥이라는 전제 아래 『실패한 신』은 공산주의광신자들이 사회주의의 이상을 어떻게 추구했는지, 소련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등 추구에서 환멸에 이르는 생생한 묘사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소련과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기만적인 스타일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6인 필자의 글 각각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 특히 환멸의 내용과 이유를 상세하게 요약·소개하면서 공산당의 선전에 현혹되어 지옥에 갇혀 있으나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는 수천만 명이 동아시아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이 텍스트가 악마(공산당)의 통치를 전복하려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킬 것임을 확신한다. 은연중 중국을 암시하며 공산주의체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대망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특이한 것은 『실패한 신』에 대한 러셀의 서평, 즉 앞서 언급한 러셀의 메타포와 더불어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 사상)가 본래적으로 지적·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텍스트 해석을 가하고 있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抄)역자의 러셀에 대한 다소의 부정적 평가, 가령 러셀이 비관적 기질이 강하다는 것을 제기하며 그의

39) 竹内好, 『竹内好全集 12』, 筑摩書房, 1981, 201~204면. 일본청년이 꼭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문맥으로 볼 때 일본공산당의 행태와 패전 후 청년들의 사상적 혼란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미군정하 일본청년들의 동향은 국내에서도 큰 관심사였는데, 일제로 어렸을 때부터 친우였고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게이오대 학생 ‘다나카’(열렬한 보수주의자)/‘마쓰모토’(열렬한 공산주의자) 간 일본군국주의, 소련사회주의 미국자본주의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제시하며 이를 일본청년들이 겪고 있는 분열상의 전형적인 면모로 소개한 바 있다. 『일본청년의 동향』, 『동아일보』, 1949.8.29(타임誌 기사 전재).

40) 殷海光, 『殷海光 全集:书评与书序(上)』, 台北:桂冠图书股份有限公司, 1990, 81~95면.

논평에 다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殷海光은 리셀은 30년 동안 충실한 반공산 주의자였다고 맞받아친다. 대만에서 『실패한 신』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 다소의 입장 차이가 존재했음을 시사해준다.

홍콩에서의 수용은 번역서 『坦白集』(1952)의 역사서문을 통해서 그 일단을 파악해 볼 수 있다.⁴¹⁾ 역자 齊文瑜(夏濟安의 필명)는 당시 홍콩에서 유통되던 수많은 중국공산당 발행의 탄백서(자백서)가 고문에 못 이겨 억울하게 작성된 것임에 비해 『실패한 신』의 저자들은 공산주의를 믿은 것도 반대한 것도 모두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그들의 극적인 변모는 공산제국의 발흥 및 붕괴와 맞먹는 20세기의 큰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공허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실패한 신』의 저자들처럼 공산주의에 귀의하고 숭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공산주의의 반인간적 모순성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는 진실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환멸로 갈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변한 뒤 반공투쟁의 최후 승리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다고 본다. 첫째, 샤오진(蕭軍)의 경우처럼 철의 장막에 갇힌 수백만의 공산당원들 사이에도 반공산주의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원조,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환멸로 인해 전향했더라도 그 이후의 행로에 나타나는 방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청산하는 일이 시급한데, 그 극복의 대안적 이상을 정립하는 과업에 중국인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반공산주의 중국인들의 세계사적 대공투쟁의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당시 반공·반중국 투쟁의 거점이었던 홍콩의 정세가 반영된 면모로 『실패한 신』의 철저한 반공적 수용을 잘 드러내준다.

이렇게 서구의 최신 냉전텍스트가 동아시아 4개국에 거의 동시에 번역·수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와 같이 세계적 문화냉전네트워크와의 접속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명백한 물증이 없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본격화된 미국의 도서프로그램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주도의 자유 동아시아 구축의 목표 아래 미국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도서계획(The Book Program)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이 1950년경이

41) 紀德 等著, 齊文瑜 譯, 『坦白集』, 香港:友聯出版社, 1952, 7~10면. 역자는 번역의 저본을 명시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축약본을 저본으로 삼았고 원본의 판권소지자와 상의하여 중국어 번역권을 얻었다.”고만 밝히고 있다.

있고 그 실제적 결과로서 동아시아 3개 지역 공통번역서가 출간되는 것은 1952년부터였기 때문이다.⁴²⁾ 번역의 경로가 어떠한지 『실패한 신』이 출간 직후 동아시아 4개 지역에 번역되는 가운데 각국의 실정과 결부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의미화 되었다는 사실은 서구 냉전텍스트가 동아시아 지역냉전에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195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를 주 무대로 한 미국/소련의 경쟁적인 원조전과 문화냉전전이 치열해지기 이전 동아시아문화냉전의 초기적 모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후 한국에서 유독 『실패한 신』의 번역이 지속되면서 텍스트의 의미 변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Ⅲ. 냉전텍스트의 심리전 활용과 전향의 냉전 정치성

1960년대 접어들어 『실패한 신』은 사상계사에서 『환상을 깨다』(1961.7)란 제목으로 다시 번역된다. 사상문고시리즈 ②번이고, 역자는 사상계사편집실로 되어 있다. 『환상을 깨다』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한 신』에서 4명만의 글을 번역·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루이스 피셔와 리처드 라이트의 글이 빠진 것이다. 반복적인 신문광고에서도 ‘공산주의의 허울 좋은 약속에 속아 그에 가담 또는 동조 추종하다가 그 진상을 실지로 보고 느끼고 실망한 뒤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찾아 전향하여온 아서 퀘슬러, 이그나치오 실로네, 앙드레 지드, 스티븐 스펜서의 체험기’로 소개하고 있다. 역자 서문이나 후기가 없어 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짙다. 이전 『사상』에서의 번역 경험과 『실패한 신』의 한국번역에서 유일한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의성이 더 분명해진다. 주목해야 할 것은 누락시킨 것이 공교롭게도 미국작가의 글이라는 사실이다. 번역텍스트의 불구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번역한 데에는 복잡한 사정이 관여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4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허은, 「미국의 문화냉전과 ‘자유 동아시아’의 구축, 연쇄 그리고 충돌-미국 정부의 도서계획과 한국사회 지식인의 인식」, 『민족문화연구』 5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참조. 특히 〈附表1〉 ‘동아시아 3개 지역 공통번역서’ 목록은 세계적 문화냉전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 미국 주도하 동아시아 지역 문화냉전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졌다시피 1950년대 사상계사는 신흥출판자본의 일원으로 가장 유력한 지식인잡지 『사상계』뿐만 아니라 서구 최신학술을 번역·출판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내·외 학술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사회문화적 공론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사상계사가 인적네트워크 및 물질 지원으로 문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아카데미즘 진작과 각 분야의 제도적 전문성을 활성화시키는데 든든한 조력자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주한)미공보원, 아시아재단 등 미국의 문화냉전기구들과 밀접한 관계가 개재되어 있었다. 가령 미국의 아시아문화냉전의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했던 도서번역계획에서 사상계사(주체들)는 한국 내 주요 파트너였고, 특히 미 해외공보처가 이상적으로 여긴 공산주의교리를 비판하는 서적의 경우에는 현지 도서출간계획에 따른 김준엽의 『중국공산당사』를 비롯해 많은 공산주의비판서 번역출간에 지원을 받았다.⁴³⁾ 사상문고시리즈를 구성한 상당수의 서적도 그 일환이었고, 이는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국내외 학술네트워크는 『사상계』입지의 확대강화에 상응하여 4.19혁명 후 더욱 확장된다. 사상계사는 당시 최대의 자유주의지식인 네트워크였던 문화자유회의와의 직접적인 제휴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자유회의의 비공식적인 한국어 매체 자격을 획득하였고 이를 활용한 세계 및 아시아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아시아 지식인들과의 탈식민 반권위주의투쟁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⁴⁴⁾ 그것은 1960년대 초 사상계사가 주관하는 국제적·아시아적 지식인 교류가 빈번해지는 결과로 나타났고, 반공산주의 및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냉전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또한 『사상계』지면으로 반영되었다. 이와 연계된 아세아문제연구소와의 공산권(북한)연구의 협업 관계를 김준엽을 매개로 구축하는 등 국내적

43) 허은, 위의 글, 591~600면. 1961년부터 발간된 〈사상문고〉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한미공보원의 현지 도서출간계획의 지원을 받아 (번역)출간된 서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번 김준엽의 『중국공산당사』(1959, 재출간), ③번 한스 켈젠의 『볼셰비즘의 정치이론』(이동화 역, 진문사, 1953, 재출간), ⑤번 살바도리의 『현대공산주의발달사』(사상계사편집실 역, 1956 재출간), ⑥구우젠코의 『巨神의 墮落』(김용철 역, 『사상계』 1956년 소재 강봉식 번역의 「거인」의 재번역), ⑩번 프랭클린의 『프랭클린 자서전』(신태환 역, 1964), ⑭번 카야터·베르츠의 『20세기의 정부와 정치』(오병현 역, 1964), 35~36번 周鯨文의 『공산정권하의 중국(상)/(하)』(김준엽 역, 1964) 등이 눈에 띈다.

44) 이에 대해서는 최진석, 「민주주의의 기로에 선 1950, 60년대 아시아 지식인-『사상계』의 문화자유회의의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9, 상허학회, 2020 참조.

학술네트워크 또한 강화되었다. 그 저변에는 『사상계』의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장준하·김준엽을 비롯한 사상계주체들의 5.16군사정부와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했던 미국 민간재단들(포드재단, 아시아재단 등)의 입장과 그에 따른 협력 및 지원의 가능성 문제가 놓여 있었다.⁴⁵⁾ 『실패한 신』 번역에서 미국 좌파지식인의 글을 생략한 것은 아마도 이 같은 다채널적인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한 조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환상을 깨다』의 발간 시점, 즉 4.19혁명의 시공간과 5.16쿠데타가 겹쳐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그런 추론이 좀 더 힘을 얻는다. 5.16쿠데타로 인해 4.19혁명의 시공간에서 분출되었던 사상적 불온이 일거에 제압된 가운데 공산권연구를 요청한 아세아문제연구소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3달 동안 사상 검증한 사례에서 보듯 유수의 문화학술관련 기구 및 단체들은 군사정부의 강압적 정비와 중앙정보부의 가혹한 사상검열을 받게 된다. 물론 이 때까지 사상계주체들의 강한 반공주의적 속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사상문고기획도 주한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비판서들을 우선적으로 출간했으며 1960년대 들어 외국문학의 게재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태에서도 『사상계』에 아브람 테르츠(시냐프스키)의 「재판은 시작되다」(1961.5), 솔제니친의 「이반 제니쑈비치의 하루」(1963.2) 같은 반공산주의소설이 게재되는 등 군사정부와 마찰을 빚을만한 행보를 보인 바 없으나, 사상적 면에서의 방어적인 자세는 불가피했다. 요컨대 『환상을 깨다』의 불구성은 군사정부와 사상계사 그리고 미국의 상호 관계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빚어진 산물이었을 것이다. 불구적 번역이란 하자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깨다』는 사상문고세트(1~10권)가 독서시장에서 비교적 많이 팔렸다는 조사결과로 볼 때⁴⁶⁾ 『실패한 신』의 대중적 수용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59년부터 다시 일어난 독서계의 문고본 열풍과 잡지 『사상계』의 지속적인 베스트셀러화가 작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다만 사상관련 서적으로 특화시켰던 초기 사상문고가 문학 중심의 번역을 위주로 한 여타의 문고본보다 독서대중의 관심을 더 끌었다는 사실은 특이하다.⁴⁷⁾

45) Education school & University-Korea University Asiatic Research center General Folder, The Asia Foundation, Box No. P-279, Hoover Institution Archives.

46) 「최근의 베스트셀러」(『조선일보』, 1961.12.9.), 「4월의 독서가」(『경향신문』, 1962.5.1.), 「베스트셀러」(『경향신문』, 1962.10.24.), 「베스트셀러」(『경향신문』, 1962.11.28.) 등.

47) 1950년대 말 문고본 전성시대의 도래는 독서문화사 및 번역문화사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대부분의 출판자본이 자체기획의 문고출판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문고본이

한편 박정희체제에서 『실패한 신』은 대공심리전 텍스트로서 수용되는 경향이 주류적이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공보부조사국 산하 심리전기구였던 내외문제연구소의 『붉은 神話』 번역출판(1964.11)이다. 문고본이고 『실패한 신』의 전역이다. 내외문제연구소는 전향 남파간첩과 월남귀순자 및 반공이데올로그들의 동원결집체로 대공자료에 대한 배타적 독점화를 바탕으로 공산권자료의 집성과 배포, 심리전 교재의 개발 그리고 직접 승공프로파간다를 수행한 국가심리전의 공식적 센터였다.⁴⁸⁾ 공보부가 시행한 심리전의 범위는 대내 심리전, 대북한 및 대공산권 심리전, 재일조선인사회 심리전 등을 포괄했다. 특히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모든 미디어에서의 공산권관련 기사는 내외문제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미디어는 공보부가 주도한 심리전의 하위파트너로 동원·배치된 가운데 냉전진영 대결 논리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재현의 크렘리놀리지(Kremlinology)가 일방적으로 대량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비됨으로써 심리전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 일환이었던 내외문고시리즈의 발간(총 31권, 1961~69년)은 승공프로파간다의 직접적 산물로 공산권 최신자료를 냉전지식 및 심리전콘텐츠로 가공해 다방면의 심리전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심리전을 이론(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실패한 신』이 내외문고 19번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텍스트의 심리전 용도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어쩌면 『실패한 신』의 태생적 속성, 즉 문화냉전의 대표적인 심리전텍스트로서의 쓸모를 가장 충실하게 (재)이용한 경우이다.

그것은 ‘붉은 신화’란 자극적인 표제에서 그리고 ‘역서(譯序)’에도 암시되어 있다. 역자 내외문제연구소는 『실패한 신』의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가운데 공산주의

출판물의 일 주류를 형성하는데, 번역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문학을 위주로 철학, 사회과학 분야의 비중이 컸다. 염가였고 대중과 밀착한 문고본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에게 널리 보급·수용됨으로써 지식의 대중화와 번역의 사회적 저변 확대에 중요한 통로로 구실했다. 뒤늦게 문고출판에 뛰어든 사상문고(사상계사)의 특징은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등 근대정치사상, 특히 공산주의관련서가 대중을 이루는데 이는 사상계(사)주체들의 이념적 지향과 서구사상의 주체적 변용의 시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봉범, 「1950년대 번역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474~490면 참조.

48) 내외문제연구소의 위상과 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는 이봉범, 「귀순과 심리전, 1960년대 국가심리전 체계와 귀순의 냉전 정치성」, 『상허학보』 59, 상허학회, 2020, 33~37면 참조.

는 자체 내의 諸모순으로 존속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고 전제하고 저자들을 ‘전향자’로 특칭한 뒤 서구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재)전향의 과정에서 겪은 동경, 심취, 환멸, 결별 등이 공산주의의 진면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소비에트 실지체험에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요인, 가령 빈부격차, 인간의 노예화, 지성의 노예화, 새로운 특권계급의 형성 등을 제시하며 인간의 존엄성 말살 자체가 여전히 공산주의체제의 본질임을 강조했다.⁴⁹⁾ 적대, 증오를 부추기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프로파간다를 드러낸 경박함은 없으나 『실패한 신』의 핵심을 공산주의로부터의 전향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공산주의체제의 열등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냉전적 변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내외문고시리즈는 대체로 1960년대 국내정세의 변동, 특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쟁점이 되는 반공관련 담론을 이론적으로 비평 또는 공적 해석을 가하는 용도로 발간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구 자유진영의 심리전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붉은 神話』도 마찬가지로의 경우로 그 출간시점은 범국민적 한일협정반대투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정권의 위기가 고조되는 한편 중립(통한)론, 남북교류론 등 국가적 통일방안(유엔감시하의 총선거)에 저해되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된 가운데 대공 전선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시기였다. 당시 국민여론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84.7%), 통일논의를 터부로 간주하지 않았으며(69.4%), 부분적 남북교류 및 가족면회소설치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⁵⁰⁾ 통일논의의 법적 한계, 즉 당시의 현행법상 북진통일 외의 모든 평화적 통일방안은 헌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에 위배되는 법리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통일방안연구의 자유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⁵¹⁾ 황용주필화사건(또는 『세대』 필화사건, 1964.11)을 계기로 중앙정보부가 선건설후통일론의 기초와 유엔통일안 이외의 일체의 통일논의를 금압하고 간첩 색출, 용공분자에 대한 사찰 강화 등 물리적 강압으로 대응하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공심리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정세였던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남전략과 1960년 김일성의 연방제통일안 발표를 시작으로 자주적 평화통일공세를 주도해가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역선전전도 시

49) 내외문제연구소, 『붉은 神話』, 내외문제연구소, 1964, 3~5면.

50) 「조선일보 여론조사-통일문제의 관심도」, 『조선일보』, 1964.11.4.

51) 김철수, 「통일방안과 현행법의 상충」, 『조선일보』, 1964.11.14.

급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붉은 神話』의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작가작품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어 1965년도 노벨문학상수상작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의 번역출판금지 조치(1965.11),⁵²⁾ 고리끼의 『어머니』에 대한 사법상이적도서로 최종 확정되었다(1967). 같은 맥락에서 내외문고 17번으로 번역·출간된 『中立主義 解剖』(1963.12) 또한 중립주의의 양면성과 그것이 동서냉전 양 진영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적 시각에서 비판·해부한 글들을 역편(譯編)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던 통일방안에 대한 이론적 공박과 더불어 국제적 위상이 점증되고 있던 중립세력에 대한 냉전적 이해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했다.⁵³⁾

두 번째 사례는 ‘世界著名作家 轉向記’ 번역 연재(『북한』, 1974.11~1975.7)이다. 『실패한 신』에 수록된 저자들의 글을 모두 번역했으며, 저본은 *The God That Failed* (Bantam Matrix edition, 1965)로 여기에 실린 글을 抄譯한 것이다.⁵⁴⁾ 각 글의 핵심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목을 바꿔 달았으며, 궤슬러의 글에만 번역자(김영일)를 명기했다. 삽화의 부분적 첨가와 저자소개란의 확충 그리고 ‘공산권토막 소식’을 연재 지면에 배치한 점이 이채롭다. 공산권소식은 주로 소련과 관련한 것인데, 정치범석방을 요구한 사하로프의 공개장, 솔로호프의 저서 출간, 소련에서 성의학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상황 등을 소개했다. ‘世界著名作家 轉向記’란 특칭하에 이 같은 변형을 가하면서 연재한 것, 특히 중앙정보부가 관할했던 잡지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이색적이면서도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어느

52) 한국 내 번역·출판·전재 금지의 이유는 솔로호프가 소련작가라는 점, 『고요한 돈강』은 소련정부가 인정하는 작품인 동시에 작품 안에 사회주의혁명을 찬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조선일보』, 1965.11.9.).

53) 이 역편에는 로렌스 마틴(존 홉킨스대학 교수)의 「新生國 問題」, 어네스트 레헤버(미 국방문제연구소 위원)의 「中立主義와 ‘네루·랏셀·엔크루마」, 찰스 버튼 마샬(전 미하원외교위원회 자문위원)의 「非加盟國이란 무엇인가」, 프랜시스 윌라스(존 홉킨스대학 국제관계연구원장)의 「非加盟國家와 유엔」, 라인홀트 니버(유니온신학대학 명예교수)의 「國際社會에서의 弱者와 强者」 등 5편이 번역·수록되었다. 냉전신학자이자 미국문화자유회의의 핵심 회원이었던 라인홀트 니버어를 비롯하여 저자들 모두 미국의 대외냉전정책 및 CIA문화냉전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54) 수록된 글은 아서 궤슬러, 「나는 왜 공산주의를 버렸나」(『북한』 35, 1974.11, 김영일 역), 앙드레 지드, 「소련에서 돌아오다」(『북한』 37, 1975.1), 실로네, 「버림받은 신」(『북한』 39, 1975.3), 리처드 라이트, 「엥글로스의 재판」(『북한』 40, 1975.4), 스티븐 스펠더, 「표류」(『북한』 41, 1975.5), 루이스 피셔, 「볼셰비키혁명과 나」(『북한』 43, 1975.7) 등이다.

정도 유추가 가능하나 번역의 대상텍스트, 번역의 주체와 등재지의 성격, 번역의 시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연재 기획의 의도가 좀 더 확연해진다.

일단 이 전향기가 연재된 월간잡지 『북한』의 발행주체 북한문제연구소가 중앙정보부가 시행했던 대공심리전의 외곽단체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연구소는 1971년 11월 중앙정보부 심리전국 산하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으며(초대 이사장:오제도), 1972년 1월 기관지 월간『북한』을 창간한 바 있다. 중앙정보부는 5.16직후 창설(1961.6)된 이래 사상통제와 반공체제 재편성 나아가 국가심리전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쿠데타세력의 전위조직이었다. 이러한 위상과 역할은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면서 한반도정세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6·8부정선거’(1967) 및 ‘삼선개헌’(1969) 강행으로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는 것에 상응하여 더욱 확대·강화되었다. 문화공보부의 신설(1968)과 국토통일원의 설립(1969)으로 제도적 차원의 (사상)검열 및 남북관계 또는 북한 연구를 두 기관이 각각 주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나 대내외적 심리전 전반은 여전히 중앙정보부가 막후에서 관장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산하에 ‘국제문제연구소’를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국내외에 걸친 대공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귀순자, 전향간첩을 동원한 심리전자료의 개발 및 전파를 주도해나간다. 1970년대 들어 국제적인 탈냉전 추세와 이를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이용해 유신체제로의 전환을 기도하면서 이후 지배/저항이 상호 상승하는 악순환 구조가 확대되는 과정은 프로파간다와 대내외 심리전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중앙정보부의 심리전이 전면화 되는데, 북한연구소의 설치·운영은 그 일환이었다. 점증된 정권의 위기를 총력안보체제를 주창하며 반전시키고자 했던 긴급조치 선포를 계기로 중앙정보부의 심리전은 간첩조작사건뿐만 아니라 대공 분야를 넘어 국내정치 사찰과 검열의 가시적 전면화로 강화되면서 1970년대 후반 사회·문화 통제의 최종심급으로서 박정희정권을 지탱하게 된다. 번역연재의 시점으로 볼 때 ‘世界著名作家轉向記’는 긴급조치 발동 전후 긴박했던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통치술로 입안한 총력안보체제의 강화와 함께 저항세력을 사상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심리전의 용도로 기획된 것임을 간취할 수 있다.

중앙정보부가 전개한 심리전의 기본은 ‘적’ 만들기를 통한 불안과 공포의 조성이었다. 방첩·간첩 자수기간의 주기적 정례화와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무수한 간첩단(조작)사건으로 만들어진 간첩이란 존재 및 이들에 대한 언론의 편향된 간첩 재현으로 조성된 공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구조를 반공으로 결박하는 원초적 기제였

다. 더욱이 1970년대는 북한이 대남전략의 변경과 그에 따른 공작원의 직파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비대해진 정보기구의 논리상 간첩을 필요로 하는 역설에 의해 무시 무시한 간첩보다 더 무시무시한 간첩 잡는 사람들의 시대가 되었고,⁵⁵⁾ 게다가 대통령이 총력안보에 저촉되거나 이를 회피하는 국민을 반국가적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응징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국가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문’, 1974.4.29.) 비국민에 대한 색출·감시·통제가 강화되면서 공포의 효과가 지속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내부의 적을 창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현시를 바탕으로 한 사상통제 공세에서 ‘전향’은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채택된다.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가 운영한 전향공작전담반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폭압적 전향공작, ‘사회안전법’을 제정하여(1975.7) 사상전향제를 부활시키는 한편 1960년대부터 시행된 월남귀순자, 전향납파간첩, 사상범전과자(좌익 활동, 전시 부역 등) 등 사상전향자를 동원한 대공심리전이 더욱 활성화된다. 이들의 육성증언과 체험 및 고백 수기들은 출판, 전파미디어, 연극·영화화를 통해 심리전콘텐츠로 가공되어 체제우월성과 박정희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유력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크라보첸코의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도 송공극단‘자유전선’의 창립공연으로 국립극장에서 상연된 바 있다(이진순 연출, 1968.2.7.). 특히『북한』지에는 전시부역자수기 『적화삼삭구인집』을 비롯하여 이전에 생산되었던 고백 수기나 증언들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앙드레 지드의 소련기행이 이 연재기획 이전에 「붉은 신화」란 제목으로 초역된 바 있다(『북한』, 1973.3). 이런 맥락에서 공산주의로부터 전향한 서구지성들의 양심 고백으로 의미화된 『실패한 신』은 대공심리전의 자료로 효용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世界著名作家轉向記’라는 연재 제목으로 말미암아 각 텍스트의 세부 내용보다는 전향에 방점을 둔 텍스트 읽기를 유인한 점도 이 텍스트의 프로파간다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패한 신』이 1970년대 후반 펜클럽한국본부의 기획 번역으로 출판된다. 전역이고, 번역자 이가형·이정기 모두 펜클럽한국본부의 간부였다. 표제에 ‘轉向作家手記’라고 명시한 것이 특징적이고, 목차의 재구성, 즉 ‘입당자들’(괴슬러, 실로네, 라이트)과 ‘동반자들’(지드, 피셔, 스펜서)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법은 일본, 홍콩의 번역서에서는 초기부터 나타난 것인데 비해 한국번역에서는 처음이었

55) 한홍구, 「한국현대사의 그늘, 남파공작과 비전향장기수」, 『역사비평』 94, 역사비평사, 2011, 213면.

다. 그렇다고 이 번역출판이 중역은 아니다. 또한 『실패한 신』에 대한 최초의 한국어 번역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분명한 착오다. 이전에 여러 차례 번역·수용된 점을 고려할 때 펜클럽의 번역출판은 다소 돌출적이다. 스티븐 스펜더가 펜클럽한국본부 초청으로 내한한(1977.9) 것이 번역의 계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펜더의 한국방문은 당시 문화계의 큰 이슈로 특필되었고, 1930~40년대 파시즘과 대결한 래디컬한 문학가, 20세기의 새로운 시를 창조한 위대한 시인, 문화자유회의『인카운터』의 편집동인, 공산당원이 되었다가 전향한 서구지성 등으로 소개되었다. 스펜더 문학 특집이 기획되는가 하면(『문학사상』, 1977.10), 그의 오든과 엘리엇에 관한 문학강연은 대단한 성황을 이뤘다. 언론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스펜서의 전향 고백이었다. 그의 자서전 『세계 속의 세계』(1951)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공산당에 입당하게 된 경위와 스페인내전 체험, 공산주의로부터 전향하게 된 이유 등이 한국(문학)의 상황과 결부되어 집중 조명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펜클럽한국본부가 『실패한 신』에 다시금 주목한 것이 아닌가 한다.

펜클럽한국본부와 스펜서의 각별한 관계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펜클럽한국본부의 산파역이자 당시 국제펜클럽 부회장이자 한국본부 회장이던 모운숙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주효했다. 스펜더는 동구공산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사된 제37차 국제펜서울대회(1970.6.28.~7.4)에 실로네, 퀘슬러, 린위탕(林語堂),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등 주요 초청 인사 25명 가운데 일인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⁵⁶⁾ 서울펜대회를 일종의 대외 프로파간다의 호기로 간주했던 정부도 소련 및 동구공산권 작가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입국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나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하고는 불참한 바 있다.⁵⁷⁾ 아마도 이 같은 전사가 스펜더의 한국방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거론한 이유는 『실패한 신』의 저자들이 냉전기 한국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⁸⁾

56) 이에 대해서는 장석항 편저, 『모운숙 평전:시문, 그대 창가에 등불로 남아』, 한빛, 1986, 202~217면 참조.

57) 「소 등 공산권작가도」, 『조선일보』, 1970.1.9. 제37차 국제펜서울대회 전반에 대한 고찰은 이상경, 「제37차 국제펜서울대회와 번역의 정치성」, 『외국문학연구』 62,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6, 65~89면 참조.

58) 스펜더는 한국을 떠나며 “한국의 문학자들이 제한된 가운데서나마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는데, 당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극단적인 억압을 의식한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펜클럽한국본부 기획 번역의 취지는 모운숙의 ‘간행사’와 ‘역자후기’에 제시되어 있다. 모운숙은 『실패한 신』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선전에 사로잡히거나 현혹되어 공산주의로 전신하는 것을 막았다는데 의의를 부여한 뒤 남북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승공의 이론적 논리를 제공해줄 텍스트, 특히 청장년층에게 경이로운 감명을 일으킬 것으로 평가한다.⁵⁹⁾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유로 공산주의의 선전과 정책에 매혹되었다가 양심 세계로 귀환한 서구 지성들의 진정한 고백서이기 때문으로 본다. 공산주의로부터의 전향에 방점을 둔 기존의 전형적인 수용과 동일한 이해방식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실패한 신』을 문학텍스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사 또한 전향 작가들이 발견한 ‘붉은 함정’을 강조한 광고를 실었다. 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특이한 것은 텍스트 독해의 위험성을 경고한 점이다. 즉 첫 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읽지 않으면 진정한 공산주의 평가가 불가능할뿐더러 도리어 공산주의에 매수당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를 첨가해 내용적인 연결을 함으로써 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다는 점을 밝혔다(307~308면). 『실패한 신』의 서사구조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역자들이 우려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제에 ‘전향작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초역일 경우 소비에트에 대한 환멸을 주로 다룬 후반부에 비중을 두고 번역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이렇게 번역시점으로 볼 때 박정희정권기에는 네 차례의 번역이 이루어진 셈인데, 번역의 주체 및 형태에 따라 수용의 양상에 얼마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대공심리전의 자료로 활용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상 전향이란 의제가 갖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성 때문이었다. 전향 고백이라는 정체성이 냉전분단의 규정 속에 특유의 정치성을 낳고 그 정치성이 박정희정권의 대내외적 심리전프로젝트와 연계되어 프로파간다 효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했던 것이다. 심리전이 박정희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한 내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양상이 강할

발언으로 이해된다. 1954년 창설 이후 가장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던 펜클럽한국본부가 김병길 외 31인 명의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긴급동의안’(1974.11.16.)을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 확보 나아가 반유신 저항운동에 부분적인 참여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펜클럽한국본부의 세대교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펜클럽을 매개로 한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이슈화는 1980년대까지 이어진다.

59) 리처드 크로스먼 편, 이가형·이정기 공역, 『전향작가수기: 실패한 신』, 한진출판사, 1978, 3~4면.

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냉전텍스트로서의 『실패한 신』의 냉전정치성이 1960~70년대 한국적 수용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현된 양상이다. 그것은 냉전텍스트 『실패한 신』이 한국적 상황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변용의 특수성으로, 텍스트의 편향적 의미화를 수반하는 과정이었다. 아울러 그 편향성 및 심리전 효과가 국내에서 생산된 전향수기들과 교차·결합하면서 증대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차이가 있다면 국내의 전향기록이 철저한 반역프레임에 의한 부정성의 극대화였다면 『실패한 신』은 지성의 양심 고백이란 긍정성이 부각된 방향성 정도이다.

IV. 냉전텍스트 전유의 균열과 탈냉전적 전망

『실패한 신』은 1980년대에 오히려 수용의 폭이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두 차례 다시 출판된 것에 비해 『실패한 신』이 갖는 의미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는 가운데 수용의 다양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종의 『실패한 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성행했던 것이다. 소련의 KAL기격추사건(1983.9.1)이 발생함으로써 고조된 반소감정이 이 텍스트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도 크게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한 신』의 저자들, 특히 괴슬러, 실로네, 리처드 라이트 등의 1930년대 작품이(스펜더의 자서전 『세계 속의 세계』 포함) 처음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실패한 신』에 수록된 저자들의 사상적 궤적과 고뇌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다. 문명사가 1985년 출간한 『실패한 신』이 사상계사의 『환상을 깨다』를 가감없이 제목만 바꿔 재판한 것이므로 1980년대 번역은 범양사판 『실패한 신』(김영원 역, 1983.7)이 유일하다.

범양사판 『실패한 신』은 입문자들/동반자들로 분류해 목차를 재구성했고, 김은국의 ‘발문(跋文)’과 미국에서 재판이 된 것을 계기로 작성된 노만 포도레츠의 『실패한 신』에 대한 재평가 논문을 번역해 부록으로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역자는 『실패한 신』의 번역이 김은국의 권유로 이루어졌음을 밝힌 뒤 저자들의 소련에 대한 낭만적 동경의 이면에는 1920~30년대 서구자유주의에 대한 절망과 자본주의의 파탄으로 인한 대안적 선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동시기 일제강점기하 민족주의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식민지조선에서의 좌우합작운동 또한 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한 인민전선의 결성과 유사한 것이라며 텍스트 이해의 역사성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출판된 지 30년이 경과된 『실패한 신』은 당시와는 현저하게 다른 미소 냉전체제의 변화상과 결부시켜 그 의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⁶⁰⁾

김은국은 발문을 통해서 앞서 거론한 바 있는 독서체험의 감동을 제시한 뒤 『실패한 신』을 20세기 고전의 하나로 간주한 가운데 제목 ‘실패한 신’은 마르크스주의와 그로부터 오는 공산주의의 모든 것의 실패이고 나아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에게 대한 배반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실패한 신』은 이러한 ‘실패한 신’과 그 ‘신’의 인간 배반을 경험한 이상주의적 지성인들의 비극과 고뇌를 담아냄으로써 소련이 인간구원의 메카가 아님을 증명했다고 평가한다. 그가 힘주어 강조한 것은 지성인들이 아직도 그 같은 실패와 배반을 스탈린 때문으로 또는 이념의 제도화에 따른 결과로만 간주하려는 지적 유혹이 존재한다며 그 이념과 주의 자체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결함을 찾음으로써 다시금 실패와 배반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다.⁶¹⁾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생애적 극우반공주의자로서 당연한 주장이기는 하나 1981년 폴브라이트교환교수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목도한 1980년대 초 이념도서 번역출판의 일시적인 허용에 따른 좌파이데올로기의 확산 현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번역자와 김은국의 주장이 모두 노만 포도레츠의 논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노만 포도레츠의 논문은 『실패한 신』의 재평가 및 1980년대적 한국 수용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노만 포도레츠의 논문은 『실패한 신』의 의의와 한계를 당대 및 1980년대적 맥락과 교차·결합시켜 분석한 예리한 비평문이다.⁶²⁾ 그는 공산주의가 냉전 초기 서구세계의 가장 뜨거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소련(공산주의)에 대한 토론이 제2차 세계대전기의 경험으로 인해 지적 암흑이었을 때 『실패한 신』이 『전체주의의 기원』(1951)과 더불어 자신을 포함해 미국의 지적 집단에 반파시즘 못지않게 반공을 필수적인 정치적 입장으로 조성케 한 심대한 영향력을 끼친 텍스트였다고 그 의의를 부여한다.

60) R.크로스먼, 김영원 역, 『실패한 신』, 범양사, 1983, 5~7면.

61) 위의 책, 333~335면.

62) 노만 포도레츠, 「『실패한 신』은 왜 실패했는가?」, 위의 책, 336~349면.

공산주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호소력과 소련에 대한 환상이 진보적 민주주의자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 심지어 일부의 반공주의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에서 이 부류들이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전력자들의 소련에 대한 환멸과 반공 증언은 반공을 정당화하는데 공헌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이 텍스트를 접하면서 반공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소련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한 환상의 재현을 막기에 충분한 의의를 발휘했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포도레츠는 동시에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실패한 신』은 많은 결점을 또한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텍스트의 약점과 과오들이 『실패한 신』이 지닌 텍스트성(textuality)에서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실패한 신』이 공산주의의 역설을 탐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좌익에 남았던 공산주의전력자들만 필진을 한정 한 배타적 원칙의 결과 공산주의에 대한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낳았다고 본다. 즉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중립적인 태도는 사회주의 나아가서는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조장한 가운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제도의 장점을 합치고 단점을 피하는 어떤 형태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대안적 전망으로 갖게끔 했다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유산인 倒錯, 배반을 스탈린이나 러시아의 특수한 조건으로 돌리면서 세계가 개조되고 구제될 수 있다는 유토피아의 꿈을 계속 믿게 되었고, 공산주의를 배척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적 집단주의나 국가사회주의를 수호하게끔 만드는 불행을 초래했다고 본다. 냉전기 민주적 자본주의가 서구세계에서는 번영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같은 환상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으나 제3세계에 적용되었을 때는 부적절한 방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패한 신』이 중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다케우치 요시미의 평가가 환기되는 지점이다.

포도레츠는 『실패한 신』의 좌익반공주의자 저자들, 특히 스펜더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악이라는 중립적 태도를 ‘지적 유토피아니즘’으로 명명했는데, 수많은 좌익공산주의자들이 이 유토피아니즘의 덮에 걸림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련세력의 확산으로부터 이 세계를 방어해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 같은 환상이 유럽 전역에 만연된 가운데 1980년대에도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요컨대 『실패한 신』 속에 정당화된 것과 같은 반공은 너무나 많은 유보와 조건이 담겨 있어 닥쳐올 압력에 견디기에는 이미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 텍스트에 대한 다시 읽기는 『실패한 신』이 후퇴시켜 놓은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날조·선전된 공산주의

에 대한 환상과 그 환상이 오늘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도덕과 가치에 완고하게 눈을 감고 있는 작가·지식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현상을 계속해서 밝혀내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가 주장하는 진정한 반공이란 소련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기타 변형, 철학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자체까지도 모두 거부하는 것에 있다. 1950년대 메카시즘의 광풍 속에서 공산당에서 전향해 극렬한 반공주의자로 활동했던 맥스 이스트먼(M.Eastman)이나 휘테커 체임버스(W.Chambers)가 한 것처럼.⁶³⁾

포도레츠의 관점은 철저히 냉전적이며 미국의 신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한때 트로츠키주의자였다가 전투적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어빙 크리스톨(I. Kristol, 1953~58년 『인카운터』 공동편집자)과 함께 미국 네오콘(neocons)을 창설하고 1960~95년 *commentary*지의 편집장으로 국제문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네오콘의 입장을 대변했던 행보의 연장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포도레츠의 평가는 『실패한 신』의 공과를 텍스트성의 차원에서 면밀히 분석한 가운데 이 텍스트가 냉전 체제하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장기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거시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그가 분석한 『실패한 신』의 냉전정치성은 한국적 수용을 이해하는데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상당수의 국민이 공산주의에 대한 실제 경험을 지니고 있었고, 가혹한 사상통제와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고착된 상황에서 포도레츠가 이 텍스트의 냉전정치성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사회주의에 대한 지적 유토피아니즘의 환상은 존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실패한 신』에 대한 한국적 수용의 장기 지속성과 그것의 편향 및 왜곡을 역설적으로 비춰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어쩌면 포도레츠가 『실패한 신』을 통해서 희망했던 바가 그의 희망 이상으로 한국에서는 수용 초기부터 지배적으로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실패한 신』의 수용 과정에서 포도레츠의 비평은 텍스트의 실내용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록으로 배치한 효과이기도 했으나 소련의 KAL기격추사건, 뒤늦게 도착한 마르크스사상의 전파와 좌익이데올로기의 대두, 냉전금기의 균열 징후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한기(학술원 회원)는 포도레츠

(63) 이들의 반공산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프랜시스 스톨너 손더스, 유광태·임채원 옮김, 앞의 책, 334~335면 및 481~482면 참조.

비평문의 기초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소련의 만행을 단순한 사고나 미국의 호전적 도발에 대한 방어로 간주하는 서구민주주의국가 일부 진보진영의 소련(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비판한 뒤 반소반공의 정당성과 그 의의를 강조한다. 러시아혁명 후 소련의 실상은 학살의 연속이었고, 공산주의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 인해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나라가 아닌 ‘수용소군도’(솔제니친), 고문과 학살의 나라(죄슬리의 『한낮의 어둠』), 지독한 전체주의 국가(『1984』)로 변질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인도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같은 진실을 진실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환상을 갖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공산주의의 역설을 탐구한 『실패한 신』의 당대적 의의가 매우 크지만 스펜더와 같은 지적 중립주의는 단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임을 강조한다.⁶⁴⁾ 공산주의에 대한 지적 유혹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는 1980년대 사회변혁운동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흐름과 결부되어 진보적인 사회·문화운동의 이념적 불온성을 비판하는 논리로 거론되었다. 이때 『실패한 신』의 공산주의전력자들의 전향이 갖는 교훈적 의미가 타산지석의 차원에서 자주 인용된다. 가령 노동자대투쟁의 노선을 용공으로 규정하며 민주화투쟁과 공산주의는 엄연히 분리·구획되어야 함을 죄슬리, 실로네, 지드, 오웰 등이 공산주의의 비인간적 잔학성을 체험, 전향한 후 열렬한 반공투사가 되었던 사례를 들어 강변하는가 하면,⁶⁵⁾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동조했다가 ‘사회주의의 실험은 끝났다’는 이념적 반전을 꾀한 사람들에게 『실패한 신』의 저자를 비롯한 공산주의에 협력했던 지식들의 고백이 끼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유독 ‘끝난 실험’을 다시 시도하려는 좌경화의 움직임을 막아야 함을 역설하는데 『실패한 신』이 동원되기도 했다.⁶⁶⁾ 1980년대를 가로지른 격렬한 사상전에서 『실패한 신』은 ‘반공산당선언’으로 재맥락화되면서 보수주의자들의 반공반소 논리를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의 다른 한편에서는 『실패한 신』의 저자들의 문학작품이 번역 소개되면서 이들의 1920~30년대 사상적 행적과 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 먼저 리처드 라이트의 1940년 작 『토박이Native Son』(김영희 역, 한글

64) 이한기, 「소련과 『실패한 신』」, 『동아일보』, 1983.9.16.

65) 양홍모, 「어떻든 장외정치 중단해야」, 『경향신문』, 1986.5.12.

66) 최준명, 「끝난 실험의 실험」, 『조선일보』, 1989.4.20.

사, 1981)가 한길세계문학시리즈④번으로 번역됨으로써 미국 흑인문학을 대표하는 라이트의 문학세계를 정시할 수 있게 되었다. 라이트의 작품은 『흑인문학전집』(전5권, 휘문출판사, 1965)을 통해서, 1945년 작 자서전 *Black Boy*가 『검둥이 소년』(김종철·김태언 공역, 홍성사, 1979)이란 표제로 다시 번역된 바 있으나 흑인판 아메리카의 비극으로 또 라이트 흑인문학의 본질과 그 가치를 집약하고 있는 『토박이』가 완역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⁶⁷⁾ 하층의 흑인청년 ‘비거’의 시선을 통해 흑백관계를 중심으로 미국사회를 해부한 이 장편은 살인을 통해 비거의 의식의 확장을 보여줌으로써 흑인문제의 한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미국 흑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의의⁶⁸⁾ 뿐 아니라 20세기 후반까지도 사라지지 않은 가장 확실한 인간불평등의 실례인 흑인의 불평등문제를 공산주의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라이트의 고뇌어린 역정을 날카롭게 환기해준다.⁶⁹⁾ 따라서 『실패한 신』에 수록된 라이트의 에세이와 『토박이』는 상호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요한 정치·문학적 의제로 부각된 제3세계(문학)에 대한 고조된 관심 속에서 라이트 문학은 제3세계문학이 추구해야 하는 리얼리즘의 하나의 본보기로 평가되면서,⁷⁰⁾ 그의 문학과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실패한 신』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 독해의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실패한 신』을 편향된 반공산주의 선언으로만 수용했던 기존의 태도와 다른 길이 1980년대에 와서 열렸던 것이다.

이는 궤슬러와 실로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스탈린통치하 모스크바의 정치재판을 배경으로 한 궤슬러의 1940년 작 『한낮의 어둠 *Darkness at Noon*』(한길사, 1982)은 혁명이 성공한 후 혁명적 이상주의와 현실사회주의체제의 정치·권력 간 괴리를

67) 리처드 라이트(작품)의 번역 수용은 의외로 해방 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다. 1940년대 후반 ‘흑인 문학’특집(『신천지』, 1949.1)에 산문 「흑인의 생활윤리」가, 『강한 사람들』(김종욱 편역, 민교사, 1949)에 시와 산문이 각각 수록되었고, 1960년대는 자서전 *Black Boy*가 『흑인소년』(조정호 역, 박문사, 1960)으로 번역 출판되었으며, 『흑인문학전집』(휘문출판사, 1965)을 통해서 『블랙보이』(정병조 역)와 단편 두 편(「다섯 개의 삽화」, 「홍수」), 시 두 편(「검은 손들」, 「저승과 나 사이」) 등이 소개된 바 있다. 라이트의 번역수용사를 탈식민/냉전과 흑인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업은 별도의 연구로 다루어볼 예정이다.

68) 김영희, 「흑인문학에 있어서 『토박이』의 위치」, 리처드 라이트, 김영희 역, 『토박이』, 한길사, 1981, 5~16면 참조.

69) 안경환, 「평등의 땅에 불평등한 흑인」, 『동아일보』, 1993.3.31.

70) 김종철, 「제3세계의 문학과 리얼리즘」, 백낙청 외, 『제3세계 문학론』, 한빛, 1982, 59~75면.

舊볼셰비키지도자 ‘루바쇼프’를 통해 비판적으로 그려낸 그의 대표작이다. 소련공산당 최고의 이론가 부하린을 모델로 했다고 알려진 이 장편의 핵심은 루바쇼프가 반역자로 체포된 뒤 자신을 희생해서 혁명과당을 지켜달라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관료적 스탈린체제에 굴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혁명의 변질과 실패에 있다. 그것이 특정 체제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혁명이 성공한 후 정치의 근본 문제들, 가령 목적과 수단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 혁명과 대중, 도덕, 양심의 문제 등을 다뤘다는 점에서 20세기 최고의 정치소설 중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혁명의 이념적 순수성과 정치적 비전에 동의했으나 스탈린 독재체제에 대한 절망으로 당과 결별한 콰슬러의 반스탈린주의가 깊이 투사되어 있고, 따라서 루바쇼프의 중국적인 행위가 볼셰비키혁명가들의 행위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것으로 또는 볼셰비키즘과 마르크스주의 내의 혁명 일반을 스탈린주의와 동일한 변질된 정치윤리로 파악하여 정죄하고 있다는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⁷¹⁾ 다만 이 장편이 콰슬러의 자본주의/공산주의 양 극단 체험이 『실패한 신』과 달리 정치소설로 형상화되었고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번역·수용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맹목적인 반공소설로만 읽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로네의 1937년 작 『빵과 포도주Bread and Wine』(최승자 역, 한길사)도 1982년 한국에서 처음 번역되어 실로네의 문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실패한 신』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수용사와 다른 접근법을 촉발시켰다. 무솔리니의 파시즘권력이 절정으로 치달던 1930년대 중반 반파시스트 지하운동을 주제로 한 이 장편은 이탈리아공산당의 공동설립자이자 반파시스트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나 당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축출되었고 좌우 모두로부터 추방당한 후에도 사회주의자로서 이상적 사회건설에 대한 모색으로 일관했던 실로네의 치열한 삶이 녹아있는 자전적 소설로 인간존재의 정치·도덕적 본질을 천착하고 있다. 실로네는 인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전에 입각해서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악과의 도덕적 투쟁을 기조로 정치적 이상주의와 도덕적 이상주의가 결합된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윌리엄 포크너를 비롯해 저명 작가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이탈리아작가로 평가받았다. 『실패한 신』의 수용사에서 한국지식인들이 실로네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 것도 전체주의의 거대한 폭력에 저항하면서도 이념의 틀에 갇히지 않은 인간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실로네

71) 임철규, 「정치와 인간의 운명」, A. 케슬러, 최승자 역, 『한낮의 어둠』, 한길사, 1982, 10~14면.

의 집요한 신념과 비전에 매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금서로 지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군이 『빵과 포도주』의 무단 복제판을 인쇄하여 나치가 점령 중이던 이탈리아 전역에 심리전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던 실로네의 문제작 『빵과 포도주』가 뒤늦게 한국에 소개되는 과정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 나아가 실로네의 공산주의 (재)전향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80년대 『실패한 신』에 대한 재평가는 양가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를 관통한 양 극단(체제)의 체험이 농축된 텍스트자체의 복잡성과 더불어 확대·강화된 권위주의 통치와 이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이 치열한 사상전 형태로 전개된 1980년대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지배세력은 민주화운동과 마르크스주의가 별개라는 분리주의를 바탕으로 진보세력의 사회변혁운동을 반체제성(용공성)으로 규정·공격하는 근거로 “공권력의 수사기록보다 더 부피와 무게를 지닌 공산주의에서 실패한 지식인들의 얘기를 발굴하고 전파”⁷²⁾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때 텍스트 저자들이 공산주의로부터 전향한 후 표명한 중립주의도 당시 좌파지식인들의 시대착오적 환상을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된다. 정치구조의 민주주의적 전환을 기본 목표로 했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도 『실패한 신』은 민주화운동의 노선 설정 나아가 이후의 정치체제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참조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저자들의 사상적 고뇌와 비전을 구체화한 문학작품의 번역 수용이 큰 몫을 했다. 실제 ‘한길세계문학’의 일환으로 앙드레 말로의 『희망』을 비롯하여 라이트, 괴슬러, 실로네의 작품을 번역한 한길사는 이 기획과 간행을 문화운동으로서 철저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는 적어도 왜곡된 시대상황 속에서 『실패한 신』에 대해 반공산주의텍스트라는 일률적인 先규정과 수용방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냉전텍스트에 대한 피동적인 수용단계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시각으로의 전환, 이 같은 긍정적인 접근법은 1987년 민주화와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화가 좌절되는 변곡점을 경과하면서 활성화 되는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수용 국면이 전개된다.

72) 손광식, 「좌파와 정치암시장」, 『경향신문』, 1987.2.4.

V. 남은 문제-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냉전 초기 미CIA의 고도의 문화냉전 전략으로 기획·탄생한 대표적인 심리전텍스트 『실패한 신』의 한국 번역 및 수용의 양상을 연대기적으로 살폈다. 歐美發 냉전텍스트가 세계적 냉전문화기구들과의 접촉을 매개로 동시기적으로 한국에 번역·전파되어 한국의 냉전문화사, 사상(지식)사에 장기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례가 드물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검토를 통해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패한 신』의 한국 수용은 냉전분단체제의 거시적인 규율 속에 반공산주의의 정당성을 확증해주는 텍스트로, 체제옹호를 뒷받침해주는 대내외 심리전텍스트로 두루 활용되는 기조가 유지되었다. 좌익에 남아있던 공산주의전력자의 증언으로만 구성된 『실패한 신』의 텍스트성과 그로 인해 출간 당시 『실패한 신』 및 저자들이 좌우 진영 모두로부터 의혹과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이 냉전텍스트가 한국에서는 반공산주의텍스트로 비교적 단일한 의미 변용을 거쳐 수용되었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관철된 특징이 있다. 포도레츠가 특히 경계했던 제3세계에서 이 텍스트의 반공주의 지식으로서의 불충분성과 반소주의의 정치적 미흡함이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가깝게는 동아시아국가들의 번역 수용과도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는 『실패한 신』의 기획 의도가 한국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이 가능했던 원천은 냉전분단체제하 사상 전향이 내포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구속성 때문으로 보인다. 전향 고백의 진정성 문제, 공산주의로부터의 전향 후 저자들의 행보에서 뚜렷하게 부각된 중립적 태도와 여전한 사회주의적 비전의 기대 등에 대한 비판까지 내포한 이 같은 수용은 지배 권력의 통치술로 확대 강화된 면이 컸으나 한국사회에 광범하게 정착된 냉전멘털리티가 이에 못지않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산주의의 실제 체험은 『실패한 신』의 냉전텍스트성과 심리전 효과를 증폭시키는 주된 바탕이었다. 피터 현의 전언에 따르면, 1950년대 중반 영국에서 궤슬러와의 교류를 계기로 6·25전쟁 후에도 소련을 피압박민족을 돕는 존재로 믿고 있는 좌익강경파들에 대처하기 위해 『실패한 신』의 한국 번역을 문의했으나 궤슬러가 소련이나 북한의 진상을 알게 되면 그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⁷³⁾ 이 텍스트의 수용에서 공산주의 체험이 갖는 비중을 대변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공산주의 체험의 절대적 영향에 의해 반공주의를 더욱 극단화시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전체주의(파시즘)로 경도되는 것을 제어하는 기제로 혹은 자본주의문명의 폐해와 비인간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전망을 모색 하는데 참조한 수용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1980년대 탈냉전의 시대적 추세 및 민주화운동의 고양과 맞물려 좀 더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의 가능성이 열리나, 냉전 해체를 계기로 묻히고 만다. 앙드레 지드를 포함해 과거 공산주의전력자들의 소련체험은 일부 보수매체(지식인)들이 냉전의 迷妄을 보충하는 소재로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뿐이었다.⁷⁴⁾

본고가 문화냉전의 차원에서 중요 텍스트로 평가받고 있으나 정작 한국에서의 번역 및 그 수용에 대한 연구가 없다시피 한 것에 착안하여 『실패한 신』의 한국 번역과 그 수용의 동태적 변용 양상을 재구하는데 초점을 둔 관계로 성긴 면이 많다. 『실패한 신』은 문화냉전텍스트로 규정되어 전파되었으나 그 내용과 영향을 고려하면 러시아혁명 이후 20세기 세계사를 포괄한 지성사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혁명에서 독소불가침조약체결 기간 저자들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야 『실패한 신』에 용해되어 있는 이들의 지적 유토피아니즘과 그 실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모든 이념의 결전장이자 세계지성들의 영혼의 싸움터로서 저자들의 사상적 고뇌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1936년 스페인내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커지는데, 헤밍웨이, 오웰, 앙드레 말로 등의 스페인내전 참여와 결합시켜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국제전이자 내전, 이데올로기전쟁 등 스페인내전이 한국전쟁과 여러 지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하나는 문화냉전 텍스트로서 『실패한 신』이 냉전심리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거시적 탐구가 필요하다. 구미에 끼친 파급력은 손터스의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나 동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의 수용은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본고가 동아시아국가들의 번역 양상을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조금 범위를 넓혀 『실패한 신』과 동시기에 동아시아국가들에서 반소비에트서적으로 명명되어 소개된 텍스트들, 가령 크라브첸코, 오웰, 게오르규, 괴슬러 등의 저작을 함께 다루어 냉전 초기 동아시아 지역냉전의 실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3세계로의 전파에는

73) 피터 현, 「나의 젊음, 나의 사랑⑨; 세계에 소개한 한국 현대문학」, 『경향신문』, 1997.2.17.

74) 권석하, 「앙드레 지드 ‘소련방문기’가 오늘의 우리에게 던진 말」, 『주간조선』, 2020.8.24.

세계적 문화냉전기구들의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은 회피할 수 없는 냉전문화연구의 필수적 과제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과연 『실패한 신』과 같은 공산주의전력자들의 사상적 고뇌와 지적 유토피아니즘이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세기 인류 최대의 거대한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에서 유일한 희망을 찾았던 이들 그룹의 행적은 또 다른 실패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패가 그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지적 유토피아니즘이 내포한 ‘진정성’까지 모두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근대의 쌍생아이자 서로를 비취주는 거울이었다는 사실이 환기되는 지점이다. 1936년 영국공산당에 입당 후 탈당 대신 당을 지키며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갱신하는 한편 자본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지적 여정을 보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정치적 신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디스토피아적인 절망에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인간사회를 꿈꾸는 혁명적 열정이 필요한 시대, 반면교사로서 『실패한 신』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적어도 서구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악’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문제제기와 비타협적인 투쟁은 오늘날 대안적 사회체제를 전망하는데 여전히 필요한 자원인 것만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김은국, 「세계지성 6인의 공산체험기」, 『경향신문』, 1983.8.23.
루이스·핏서, 「스탈린의 생과 死」, 『사상』, 1952.12.
백철, 「인간성 옹호와 문학」, 『조선일보』, 1956.6.26.
선우휘, 「‘실패한 신’은 누구인가」, 『조선일보』, 1983.12.4.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2017
김을한, 『인생잡기』, 일조각, 1956
내외문제연구소, 『中立主義 解剖』, 내외문제연구소, 1963
_____, 『붉은 神話』, 내외문제연구소, 1964
리차드 크로스먼 편, 『공산주의를 벗어난 인물들』, 을유문화사, 1952
리처드 크로스먼 편, 이가형·이정기 공역, 『전향작가수기:실패한 신』, 한진출판사, 1978
백낙청 외, 『제3세계 문학론』, 한빛, 1982
빅톨 크라브첸코, 이원식 역,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상)/(하)』, 국제문화협회, 1948~49
빅톨 크라브첸코, 허백년 역,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동해당, 1951
양호민 역편, 『혁명은 오다-공산주의비판의 제관점』, 중앙문화사, 1953
오제도 외, 『敵禍三朔九人集』, 국제보도연맹, 1951
이언 매큐언, 민승남 역, 『스위트 투스』, 문학동네, 2020
임철규, 「정치와 인간의 운명」, A. 케슬러, 최승자 역, 『한낮의 어둠』, 한길사, 1982
章丙炎, 허우성 역, 『공산당 치하의 중국』, 공보처, 1949
장석향 편저, 『모운숙 평전:시문, 그대 창가에 등불로 남아』, 한빛, 1986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유광태·임채원 옮김, 『문화적 냉전: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2016
A. 케슬러/I.실로네, 최승자 역, 『한낮의 어둠/뺨과 포도주』, 한길사, 1982
E·스티븐슨, 강한인 역, 『내가 본 蘇聯』, 자유출, 1961
H·스트랄렌, 윤형중 역, 『소비에트 旅行記』, 탐구당, 1964
J. 혁슬리, 옥명찬 역, 『科學者が 본 蘇聯』, 노농사, 1946
R. 크로스먼 편, 사상계사편집실 역, 『환상을 깨다』, 사상계사출판부, 1961
R. 크로스먼 편, 사상편집실 역, 『실패한 신』, 문명사, 1984
R. 크로스먼, 김영원 역, 『실패한 신』, 범양사, 1983
S. 스펜더, 위미숙 역, 『世界 속의 世界』, 중앙일보사, 1985
紀德 等著, 齊文瑜 譯, 『坦白集』, 香港:友聯出版社, 1952
紀德 等著, 蕭閑節 譯, 『追求與幻滅』, 台北:自由世界出版社, 1950
殷海光, 『殷海光 全集:书评与书序(上)』, 台北:桂冠图书股份有限公司, 1990

竹内好, 『竹内好全集 12』, 筑摩書房, 1981

村上芳雄, 鎌田研一 共訳, 『神は躰く』, 青溪書院, 1950

村上芳雄 訳, 『神は躰く』, 国際文化研究所, 1956

김봉국, 「1950년대 전반기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과 활동」,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김영희, 「흑인문학에 있어서『토박이』의 위치」, 리차드 라이트, 김영희 역, 『토박이』, 한길사, 1981

남원진, 「해방기 소련에 대한 허구, 사실 그리고 역사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2011

노만 포도레츠, 「‘실패한 신’은 왜 실패했는가?」, R. 크로스먼, 김영원 역, 『실패한 신』, 범양사, 1983

옥창준·김민환, 「사상심리전의 텍스트로서 한국전쟁-자유세계로의 확산과 동아시아적 귀환」, 『역사비평』 118, 역사비평사, 2017

이봉범,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_____, 「냉전과 월남지식인, 냉전문화기획자 오영진」,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학회, 2016

_____, 「귀순과 심리전, 1960년대 국가심리전 체계와 귀순의 냉전 정치성」, 『상허학보』 59, 상허학회, 2020

_____, 「『북의 시인』과 냉전 정치성:1960년대 초 한국 수용과 현해탄 논전을 중심으로」, 『한국연구』 6, 한국연구원, 2020

이상경, 「제37차 국제펜서울대회와 번역의 정치성」, 『외국문학연구』 62, 한국외국어대 외국문학연구소, 2016

이행선, 「해방공간, 소련·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 『인문과학연구논총』 34(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최진석, 「문화냉전기구의 형성과 변동 연구, 1954~1968」,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_____, 「민주주의의 기로에 선 1950, 60년대 아시아 지식인-『사상계』의 문화자유회의의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9, 상허학회, 2020

한수영, 「1950년대 한국 문예비평론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한홍구, 「한국현대사의 그늘, 남파공작과 비전향장기수」, 『역사비평』 94, 역사비평사, 2011

허은, 「미국의 문화냉전과 ‘자유 동아시아’의 구축, 연쇄 그리고 충돌-미국정부의 도서계획과 한국사회 지식인의 인식」, 『민족문화연구』 5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Cold War Politics on Korean Translation and Acceptance of the Cold War Text 『The God That Failed』

Lee, Bong-beom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xt in which 『The God That Failed』, which was planned with the clear intention of the Cultural Cold War in 1949, was translated in Korea and the aspect of its acceptance, and aims to investigate its status as a Cold War text and its influence. 『The God That Failed』 is a collection of essays on communism experience and a record of conversion to communism, which confessed in detail the process of joining, experiencing, disillusioning, and withdrawing from communism by prominent Western intellectuals who joined the Communist Party or sympathized with communism. The special feature of this conversion text is that it is a simultaneous critique of communist ideology(Soviet system)/liberal ideology(capitalist system). However, 『The God That Failed』 was used as a representative psychological warfare text of the Cultural Cold War as it was meant as decisive evidence to prove the failure of communism by the CIA's Cultural Cold War strategy. In addition, through international Cold War cultur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Cultural Freedom Council, it has spread worldwide and its authority and influence as a Cold War text have been expanded. Therefore, 『The God That Failed』 can be said to be a rare text that can simultaneously grasp the global chain of the Cultural Cold War and the East Asian and Korean acculturation of the Cold War knowledge.

The acceptance of 『The God That Failed』 into Korea was maintained as a text that confirms the legitimacy of anti-communism in the macroscopic discipline of the Cold War system, and is widely used as a psychological warfare tex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support the advocate system. In Korea, it was accepted as an anti-communist text through a relatively single meaning change, and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it has been dominantly carried out for a long time. It can be said that the insufficiency of this

text as anti-communist knowledge and the political inadequacy of anti-Sovietism in the Third World, which Podhoretz was particularly wary of, did not exist in Korea. This shows that the planning intention of 『The God That Failed』 was most practically implemented in Korea. This was possible because of the strong ideological constraints implied by the ideological conversion under the Cold War system. This acceptance was largely strengthened by the ruling art of the ruling power, but it is judged that the Cold War mentality that was widely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worked no less than this. In particular, the actual experience of communism was the main basis for amplifying the Cold War textuality and psychological warfare effect of 『The God That Failed』. This is also a point of distinction from the acceptance of translation by East Asian countries.

Key Words : *The God That Failed*, Cold War, Cultural Cold War, translation, accept, Cultural Freedom Council,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Cold War politics, acculturation, convert, East Asia, confession, long-term sustainability, recontextualization, soviet, psychological warfare, propaganda, Cold War knowledge, Soft Power

